



“실천없는
앎과 삶 의미없지요”

‘1-1-1’을 5년 동안...“모교에 기여해 행복”

백일웅 경영 83
동서식품 유통 대리점 운영

1-1-1 캠페인을 통해 지난 5년 간 매달 20만원씩을 꾸준히 아주대에 기부해왔다. 1-1-1 캠페인은 학교가 ‘1 명이 1달에 1만원씩’을 표방하며 시작한 소액기부 운동으로, 이 캠페인을 통해 누적 기부액 1000만원을 넘긴 기부자는 백일웅 동문이 처음이다.

“아주대학교에 다닐 때, 돈을 벌면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늘 이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았다. 대학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동아리 활동은 정말 열심히 했다. 아주불교학생회(아불회)에서 활동했고 1984년부터 1년 동안은 회장도 맡았다. 이 동아리는 아쉽게도 2000년부터 신입 회원을 받지 못해 자취를 감췄다. 우리 동아리 선후배 120여명이 온라인 카페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 내 대학생활은 ‘아불회’ 세 글자로 설명된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아주대가 있었기에 아불회를 만날 수 있었다. 학교와 후배들에게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이유다.

‘실천하는 삶이 우리 집의 기쁨이며 운영하는 회사의 사훈이다. 아무리 보고 배운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했다. 모교에 기여할 수 있어 행복하다.’



1 소탈한 사무실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는 백일웅 동문.
2 학생시절 동아리 ‘아불회’ 공연 중, 민속촌에서 배우고 뒤은 승무를 축제 때 공연했다.

석규야, 아주대로 와라!

좋아하는 공부를
깊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나다운 답을 찾게 해주세요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뛰게 해주세요

진짜를 다지고 나면
괴짜가 나오게 해주세요

파란학기제, 3인터-시메스터 등
‘괴짜 같은 진짜’를 키우는

아주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세상의 모든 석규를 기다립니다.



아주대학교

김석규 군은 KBS의 '명견만리'에 출연, 학교 공부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꿈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는 석규의 꿈을 응원합니다.



creative for great
CREATIVE
뛰어난 것은 권태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 (CREATIVITY)

파란학기제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도전학기제

3in1 semester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인 최대 3학기
해외교원학생 파견

AFTER YOU
배려의 가치로 크는
후배를 위한 '에프티유'의
글로벌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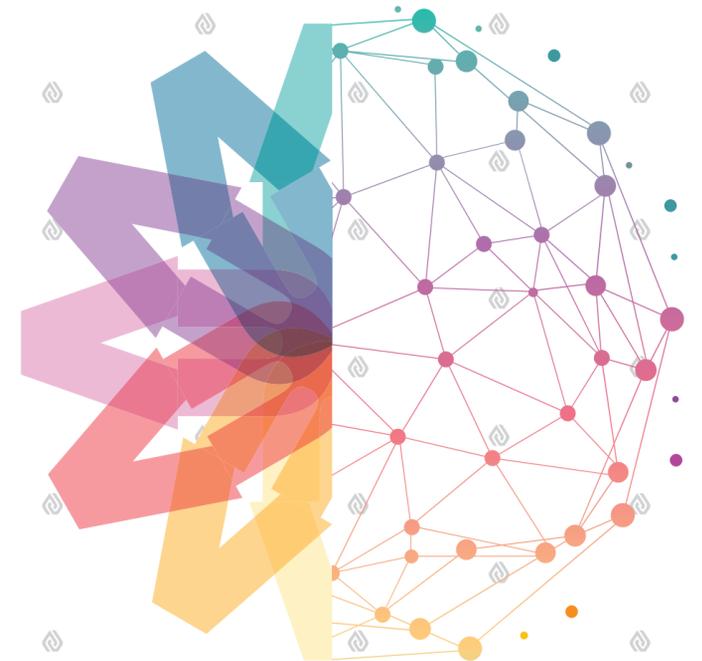
Global
InterShip
다양한 직종을
세계의 현장에서
글로벌인턴십

서울보다 가깝다.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아주대까지 30분



모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드 > 2018 (4351) 여름호 통권21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8 060708 Vol. 24



특집
협력하는 지성,
커가는 가치 | **CONNECTING MINDS**

4 4大 로스쿨 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 '제일을 일구어 온
아주대병원 권역의상센터

SPECIAL
INTERVIEW
정재승

협력하는 지성, 커가는 가치

CONNECTING MINDS

CONNECTING MINDS

4

SPECIAL
특집 기고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이분열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교수



문혜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대찬
생명과학과 교수



박상규
진신탐사그룹 <실록> 기자

10

SPECIAL
4대 로스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4

SPECIAL
제일의 역사
권역의상센터



이국중
권역의상센터 센터장

18

SPECIAL
특별 인터뷰



정재승
뇌과학자

22

SPECIAL
과짜 같은 진짜



김현수
디자이너/미디어학과 09

24

REPORT
백문이불여일방



박혜주
전자공학과



양지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성주호
물리학과



김태화
경영학과



최서현
영어영문학과



정형주
국어국문학과

26

REPORT
국가사업된
"AFTER YOU"



"그 친구를 보내자!"



"그 생각을 펼치자!"

29

REPORT
2018 한독청년포럼



"백두산에서 라인강까지"

32

COLUMN
학문의 생활화
전공 소개

"비트코인을 말한다"



김중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박규병
사학과 교수

36

RESEARCH NEWS/NEWS
DONATION

"전자과부" 구현



김성환 · 박지용 교수 외



2018 우수 연구자 시상식

"실천은 행복이죠"



박규병 경명83
동서식품유통대리점 운영

협력하는 지성, 커가는 가치

CONNECTING MINDS



함께 나는 이유

CONNECTING MINDS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함께의 가치 새들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입증해

협력은 전체를 넘어 개인, 지속가능함에도 이익으로 연결돼

새 때는 날아가며 모양을 만든다. 물고기 떼도, 벌 떼도 패턴을 만든다. 새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독자적이지만 그들의 모임은 마치 별개의 정신을 가진 존재인 듯 보인다. 원시시대부터 사람도 무리 지어 살아왔는데, 한 개인에 국한해 보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자신의 생존에 득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새가 무리 지어 나는 것과 사람이 무리 지어 사는 것에는 공통의 이유가 있을까.

새가 떼를 이루어 날면 홀로 나는 새보다 훨씬 먼 길을 간다. 이런 관찰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사용되곤 한다. 인간이 홀로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는 팀원이 힘들면 일시켜 주고 격려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텐데 새 떼에서도 이런 유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새 떼의 움직임을 각각의 구성원 움직임으로부터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는 30년쯤 전에 처음 있었다. 각각의 새는 인근 새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전체의 이동 방향으로 자신도 이동한다고 가정했다. 왜 그런지는 묻지 않았다. 일단 가정한 것,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공리에 해당하는데, 이 가정하에서 전체 새의 움직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했다. 놀랍게도 실제 새 떼의 모양이 재현됐다.

새의 움직임 원리에 대한 세 가지 가정하에서 새 떼의 움직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처음 재현한 크렉 레이놀즈는 그 뒤에 1992년 영화인 '배트맨 리턴즈'에서 박쥐 떼 영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했고, 1998년에는 아카 데미상 과학기술부문을 수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새들은 왜 이 세 가지 운동 원리를 지키는 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홀로 갈 때보다 더 멀리가지? 2001년에 펠리칸

에 심장박동 측정기를 달고 진행한 실험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무리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새는 중간에서 하는데 심장박동이 빨랐다. 더 날갯짓을 많이 한 것이다. 반대로 V자로 나는 새 떼의 가장자리에 있는 새들은 심장박동이 느렸다. 지도자가 더 수고를 해서 종족을 지키는 건 어디나 똑 같다. 하지만 새의 경우는 지도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틈틈이 임무 교대를 하는데, 아마도 수고를 공유하는 모양이다.

여기까지는 관찰인데, 왜 가장자리 새는 날갯짓을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공기역학이 들어온다. 새가 날갯짓을 할 때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날갯짓 때문에 날개 아래의 공기가 내려가고 날개 옆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새 옆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로 올려 주는 힘이 생긴다. 옆의 새는 날갯짓을 조금만 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새 옆에 있는 건 명백하게 이익이 되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니까 더 멀리 날 수 있다. 개별 새의 이기적 관점에서는 무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기역학적 관찰은 1987년에 레이놀즈가 사용했던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설명해 준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려가는 힘을 함께 받으니까 안 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올라가는 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곤란하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그 이유를 모를 때는 그저 경이롭지만, 관찰과 수학적 분석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 원리를 보여 준다. 함께 무리 지어 움직이며 협력하는 것은 전체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이익이므로 지속성을 가지며 계속되는 것이다.

무리 지어 나는 새는 홀로 나는 새보다 멀리 간다. **A**

* 이 글은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전재하였습니다.

교수의 성적표



또 BK21(Brain Korea 21) 사업 평가 시즌이 돌아왔다. 1999년 아주대학교가 BK21사업을 수주함으로 인해 내가 아주대에 임용되었고, 1단계(7년), 2단계(7년)에 이어 현재 3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내가 단장을 맡고 있다.

이 사업을 맡아 수행하면서 다양한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여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BK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보다도 더 혹독하게 교수가 평가를 받고 있다.

BK사업과 떼어 놓고 생각해도 현 시대의 교수는 '개인정보 활용도가 무색하게 거의 별거벗겨진 상태에서 학생과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교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논문 게재 실적이다. 과거에는 SCI 논문 게재 편수가 주요 평가 지표였다면, 지금은 ▲논문의 질(impact factor, 상위 몇 % 저널 등) ▲총 인용 횟수 ▲H-index 등 평가 방법이 세밀화 그리고 정량화되고 있다.

논문 실적과 아울러 ▲특허 등록 실적 ▲기술이전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 다양한 면에서 교수의 능력이 평가된다. 아울러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수업을 평가한 '강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기 죽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 교수는 이러한 지표 관리를 부단히 해야 하고 또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2001년에 아주대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내 교수로서의 성적표를 점검해 본다. 지난 18년간 100여편의 SCI논문은 게재하였고, 60여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18억원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91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그 동안 이론 성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끄러운 수치는 아니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게 만드는 지표는 따로 있다. 바로 내가 지도한 대학원생의 취업이다. 짧게는 2년(석사), 길게는 5년(박사)동안 매일 만나 지도하는 학생이 석·박사 학위를 받아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직장을 잡아 나가고 있는가? 교수는 선생이고, 선생의 본업은 후속 세대의 앞길을 지도하고 열어주는 것이다. 교수가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후속 세대의 앞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비전이 없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가 그들 비전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나는 교수로 일하는 지난 18년간 47명의 석·박사 학생을 졸업시켰고 거의 모든 졸업생이 나에게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을 근간으로 직장을 잡았다.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LG화학, 9명) 및 나를 직·간접적으로 아는 회사(사람)가 채용을

나와 주변인의 '헌신의 힘'으로 대기업에서 7년간 연구비 유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더 멋진 스토리 만듭시다" 최근 다시 제안 이제 '德'으로 새 결실 연결해 갈 것

하였다. 현재 내 나이 51세로, 앞으로 은퇴하기까지 남은 14년 동안 과거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50이 넘으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연구에 대한 열정도 현격히 줄어든다. 30대는 '자기 힘'으로 살고, 40대는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힘'으로 살고, 50대는 '덕(德)으로 사는 것'이라고 어느 선배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맞는 말인 것 같다.

35세에 아주대에 임용되어 40대 초까지는 학생들과 밤 늦게까지 같이 실험하며 성과를 창출하였고, 40대 초에 노안이 와 직접 실험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박사 과정 학생의 도움으로 성과를 창출하였다. 50대는 '덕(德)으로 사는 것'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논어에 "德不孤, 必有隣(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로 적혀 있다.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일(연구)과 관련해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나 역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일을 배웠고, LG화학에 다니면서 세상을 접해 보았고, 아주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 연구와 관련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길게는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학생이었던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자가 되었다. 그 동안 축적한 인간 관계가 현재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 같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고, 이를 배경으로 내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 해오던 연구 주제를 벗어나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 아주대 부임 초기 시절 LG화학에서 7년간 연구비를 주었다. 그 중 한 주제는 사업화에 성공, 현재 LG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멋진 스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해답을 얻지 못해 중간에 중단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해 보자고 한다. 이제는 원숙하여 그 때 안 보이던 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하다. 30~40대에 뿌린 씨를 그 동안 쌓아 놓은 '덕(德)으로 잘 키워 결실을 맺는 시기인 것 같다. 덕(德)을 쌓는다고 표현한다. 덕(德)을 쌓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키워야 하고 아울러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 바쁜 현대인은 얻는 것이 있어야 나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비평
 협력하는 지성,
 키워는 가치
 S
O
L
I
D
I
T
Y
C
O
U
N
T
I
N
G



단힌 결론 열기



대학 교수의 일은 연구와 교육이다. 학문적 관심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교육 현장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교수'라는 직업의 매력이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 대부분의 대학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인문학의 현실은 참담하기조차 하다. 현실에서 인문학 교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인문학이 비실용적이지 않음을 강변해야 하고, 쓸모 있는 직장에 있는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인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된다'는 멘트를 유도해내야 한다. 취업과 연관된 교과목을 개발하고, 때로는 그에 맞춰 전공 분야를 확장하거나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과 학문적인 주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 교수가 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일까.

'비평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덕분에, 문학 비평이나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모인다.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글을 쓰게 하고, 쓴 글을 검토하여 수정해주고, 공식적인 지면에 제출해볼 것을 권한다. 학생과 더불어 작품을 읽고 생각하고 고치며 한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다. 강의 시수에도, 봉사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이것은 전공 영역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장(場)이다. 아직 순수하고 총명한 학생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뿌듯함은,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위로이자 보상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 또한 이 일에 지쳐가고 있었다. 활발하게 돌아가던 스터디 팀이 팀원 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와해되고, 학생들의 글은 진척이 없고, 취직이나 진로 같은 현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초조하고 답답했다. 정작 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느낌. 학생들을 채근하는 일이 마치 빗 독촉을 하는 것과 같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지도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아무 소득 없는 몇 년간의 노력이 허망하기도 했지만, "글을 쓰고 공부하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즈음, 글이 나아지지 않음을 질책하는 나에게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서두르시면, 저희들은 다 망합니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비로소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됐다. 미흡한 글을 반복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는 전도되고, 학생들은 자생력을 잃었던 것 같다. 스스로의 욕망과 기획에 의해서 시작된 글이 속제가 되면서, 교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들을 옥죄었던 것이다. 교수가 대화와 토론의 상대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자로 변할 때, 학생들의 사고는 규격화되고 상상력은 닫혀버린다.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미흡한 글을 수정해주는 것이 아

참담한 인문학 현실 인문학 교수의 할 일은 무엇인가

위로이자 보상였던 학생 지도, 조금씩 지쳐가며 초조 다급해져

"서두르시면, 망합니다"에 고민해 찾은 결론 가능성 믿고 기다리기 스스로 답 찾게 하기

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교양 강의인 <문학이란 무엇인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는 이 강의의 목적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확인하고 지지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다. 그만큼 문학에 대해 아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많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베스트셀러는 나쁜 작품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 왜 좋은 작품이 아닌지, 그러면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지 등등. 하나같이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나는 답변을 보류한 채 질문을 학생들 간 토론으로 연계해 놓는다. 강의 Q&A를 열어놓고 질문자가 질문을 올리면 다른 학생들이 댓글을 달고 다자간 토론이 진행된다. 나 또한 토론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댓글을 달거나 질문을 올린다. 이따금 강의 시간에 온라인 토론을 연결하여 진행하거나 중간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답을 찾아간다. 문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비로소 남과 다른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곧 그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찾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기기 조작법이나 뽕 굽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운동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것들 또한 일종의 교육의 성질을 띤다. 그러나 인문학 교육은 이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자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의 사고의 과정을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흔들여 놓는 것이다. 알고 있는 답이 맞는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물어보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답과 생각을 찾아가게 하는 것. 설명 얻어진 답이 출발점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다. 인문학은 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결론을 열고 그것을 서론 삼아 사고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 그것이 인문학 교육이다. ●

골방으로 빠져들기



박대찬

생명과학과 교수

이공계 학생기자로

다양한 전공의 동료, 교수들과 밤샘논쟁-결론도출의 '뒤섞임' 겪어

과학자의 공부는

사실 근거한 데이터로

"섞임 없겠지"는... 착각

현대는 학문도 일상도

평등화된 토론-설득의 사회

대학의 '연습용 골방'에 빠져보길

어느 날 TV를 켜보니 친한 대학 친구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창시절에는 볼 수 없던 어색한 헤어 스타일에 살포시 떨리는 목소리로 국정논단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네이버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눈에 익은 이름의 대학 선후배 기자가 작성한 글이 곧잘 보입니다. 제가 언론정보학과나 인문대학 졸업생이냐고요? 아뇨,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입니다.

언론 출판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만난 곳은 제대 후 진로와 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몸담았던 대학 신문사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며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이공계 학생이 주간 학보사의 기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외도'였습니다. 주중엔 기사 거리를 찾아 취재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유머가 곁들여진 짧은 만평을 써 편집장의 OK 사인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겨 귀가하기 일쑤였죠. 불타는 금요일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몸을 불사른다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요. 원고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 밤새는 일이 허다했고, 힘들게 주말을 넘기고 나면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찬란한(?) 대학 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기자 생활은 비록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법학, 정치외교, 불어불문, 천문학, 미학 등 너무나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 강사, 교수님들과 대학 사회의 이슈에 대해 대화하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때 얻은 가장 큰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뒤섞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과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뒤섞여 토론을 하면, 의견이 잘 모이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신문의 전통적 방식인 "골방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 회의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골방(회의실)에 갇혀 아무도 집에 못 가는,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방식에 역행하는 회의였죠.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우리는 집에 가기 위해 새벽 해 뜰 때까지 설득하고, 또는 양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대학 신문사를 떠나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학을 하면 같은 전공의 사람들하고만 일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현대 학문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생명정보학 및 유전체학은 컴퓨터, 통계, 생물학을 접목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는 연구는, 외과의사가 수술을 통해 제공하는 암 조직에서 DNA 서열을 얻고 컴퓨터로 분석을 통해 돌연변이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무언가 재미난 분석 데이터를 얻으면 실험 생물학을 하는 연구자에게 제가 얻은 것을 설명해주고 실험적 검증을 요청하죠. 즉 의사와의 사소통을 해야 하고, 실험자와 토론을 해야 하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연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의사는 암 시료를 채취할 때 때문에, 생명정보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실험자는 내가 검증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서로 주인공이라고 주장

한다면 그 연구 공동체는 더 이상 좋은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뒤섞임은 단순히 제 학문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분석할 데이터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자에게는 의료, 지도, 음악 등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융합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 연결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문사를 떠날 때 굉장 토론 '골방 회의'를 추억하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지리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제 인생에서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과학은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학문이니 데이터만 보여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논쟁이 생긴다면 수학적으로 단순하지만 완벽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 또한 큰 오산이었습니다. 우선, 연구와 학문의 과정은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를 근거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며 또 때로는 후퇴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연결된 채 뒤섞여 사는 것은 대학생들, 직장 생활, 여가생활까지 현대 사회에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창시절 신문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연결의 방식이 지금 몸담고 있는 학계나 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문의 편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서로 끝까지 토론하고 설득해야 했던 상황 그대로, 요즘의 저는 주변 과학자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허약하고 부실한 구조가 아니라, 건강하고 튼실한 연결로 만들기 위해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수평적 위치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서로 설득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부단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고설킨 '연결'이 권위, 불통, 일방향이 아닌 평등, 소통, 쌍방향성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연결된 상호작용의 긍정적 힘이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회'라는 골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신문사에서는 집에 가기 위해 서로 끝까지 소통하고 토론했지만, 사회라는 골방은 마땅히 탈출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더 크고 다양하게 연결된 사회에 나가기 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힘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연습용 골방'이라 생각합니다. 이 '연습용 골방'에서 나에게 주어진 연결을 즐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통하고 대화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을 맺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화합하며 소통하여, 넓고 강한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를 켤 때 사언가, 정치인,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한 여러 분을 보며, 저와 연결되었던 학생이라며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비판

협력하는 지성,
커치는 가치

UNIONIZINGINTUITION



떨리면 밤샌다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설록> 기자

그녀를 위한 모든 일은 행복했다 사랑은 위대했다

돈 안되고 밤을 새워도 기쁨이 있는 일

할까말까엔 “가슴이 떨리는가”가 기준이다

찌개에서 올라오는 뽀얀 김을 연막 삼아 앞에 앉은 여자 얼굴을 흘금 바라봤다. 4인용 식탁 가운데에서 끓는 부대찌개 국물보다 내 가슴이 더 흔들렸다. 면발에서 떨어지는 국물이 후식라도 웃으로 툴까봐 잘 익은 라면 사리에는 젓가락도 못 댔다.

서울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은 원래 저렇게 예쁜가. 부대찌개 건너편의 그녀는 산골의 내가 자라면서 본 사람과 많이 달랐다. 그녀의 눈, 코, 입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그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대찌개 국물처럼 쪼그라들었다. 대신 부질없는 희망은 불은 라면처럼 부풀었다.

초라한 외면과 설레는 내면.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학 사학과 신입생 환영회는 그 심각한 불일치와 갈등 속에서 끝났다.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 어렴풋이 느꼈다. 불은 라면이 다시 쫄깃해질 수 없듯이 스무 살의 부푼 내 마음 역시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스무 살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처음 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녀도 곧 나를 좋아할 것이란 허망을 꿈꾸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런 꿈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내면과 외면의 갈등을 뛰어넘는 심각한 관계의 불일치. 이 관계를 일치로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했고,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시작한 일이 바로 '리포트(보고서) 대신 써주기. 노트북, 인터넷은 커녕 개인용 컴퓨터도 대중적이지 않던 시절이었다(나는 1995년 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손으로 한 글자씩 그녀의 리포트를 썼다. A4 용지 다섯 장을 다 채울 즈음이면 검은 밤은 어느새 푸른 새벽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이걸 그나마 마나았다. 어느 날 한국사 교수님이 폭탄 선언을 했다.

“앞으로 손으로 써온 리포트는 받지 않겠습니다. 곧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열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pc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물은 꼭 pc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하늘이 A4 용지보다 더 하얗게 보였다. 이전 컴퓨터도 배워야 한단 말인가. 산골의 나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 'pc 문서가 뭔지도 몰랐다. 컴퓨터가 있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못 하겠는가. 친구에게 컴퓨터 켜고 끄는 방법부터 배웠다. 한글 파일을 열고 자판을 치면 하얀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새겨진다고 친구가 가르쳐 줬다. 자판을 누르니 화면에 검은 글자가 나타났다. 아, 놀라운 기술의 신세계!

기술 이전을 마친 친구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마리 독수리가 되어 양손 검지 두 개로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도각도각 자판 누를 때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글자. 글자가 날아가 되고, 날말이 문장이 되어 비로소 완성되는 한 편의 글.

밤을 꼴딱 새워야만 A4 다섯 장 리포트를 겨우 완성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그뻘 그녀를 위한(?) 모든 일이 그랬다. 사랑의 힘은 컴퓨터 앞의 한 마리 독수리를 키보드 전사로 만들 정도로 위대했다. 나는 불과 1~2개월 만에 열 손가락으로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두드려 리포트를 딱딱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됐다. 그녀의 숙제를 대신 하는 것도, 컴퓨터로 글 한 편을 완성

하는 일도 재밌었다. 여러 밤을 하얗게 불태워 내가 리포트 자판기가 될 즈음, 대필한 글이 책 한 권 분량이 됐을 법한 바로 그때,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줬다.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일은 단기 속성으로 습득할 수 있으나, 사람과의 관계에는 그런 게 없다. 어렵게 만든 관계와 마음의 일치는 나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오래 가지 않았다. 학년이 바뀔 즈음 우린 각자의 길을 갔다. 그렇게 첫사랑이 허무하게 끝났다.

밤 새워 글 쓰는 일은 더는 없었다. 타인을 위한 숙제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내 숙제는 잘 하지 않았다. 졸업 평점 2.55. 학과 골동이었다. 돌아보니 대학 4년 동안 스스로 좋아서 열심히 했던 일은 딱 하나, 그녀를 위한 리포트 대신 쓰기뿐이었다. 대졸자 신분으로 세상에 나왔으나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취업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토익 점수도 없는 평점 2.55 대졸을 받아줄 곳도 없었지만 말이다.

세상은 나를 '능력 없는 백수라 불렀지만, 나는 스스로를 '취업 유예자로 여겼다. 별 의미 없는 자위, 알맹이 없는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 물론 나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에만 나를 맡겨둔 채,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작은 일조차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비록 꼴등으로 졸업했지만, 나는 소중하니까!

소중한 나를 굶길 수는 없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대한민국 최고 비싼 집 타워팰리스가 지어질 때, 그곳에서 일명 '노가다'를 했다. 일은 힘들었고, 타워팰리스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갔다. 일은 재미가 없었고, 잠은 자도 자도 부족했다.

새 일자리를 구했다. 수인 삼성전자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 약 3000개씩 찍어냈다. 진정한 노동의 쓴 맛이 거기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직 노동과 수면으로만 보냈다. 약 1년을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 문득 글자, 책, 신문, 문학, 역사, 철학 등 돈 안 되는 것들이 그리웠다. 그리움에 이끌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다. 책을 읽었다. 다 읽으면 노트북을 열고 서평을 썼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내 숙제도 아닌데, 서평을 정성 들여서 썼다. 돈 안 되는 그 것이 재밌고 즐거웠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 그녀를 위해 리포트를 쓰던 그 밤이 떠올랐다. 밤을 새워도 그리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던 그 순간들. 그 기쁨과 환희를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 이전 그녀가 내 곁에 없어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장 돈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그 일은 다시 나를 밤새우게 만들었다. 가슴 떨리는 일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 떨림을 외면하지 않았더니, 기자가 됐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의 연속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할지 말지 고민할 때,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가?' 이렇게 쓰다 보니 문득 옛 첫사랑이 생각났다. 나처럼 40대 중반이 된 그녀에게 "잘 지내나?"라고 카톡을 날렸다. 우리질, 답장이 없다. 역시 가슴 떨리지 않는 것, 괜히 한 번 해보는 것은 하는 게 아니다. 간만에 부대찌개나 먹으러 가야겠다. ●

특집

협력하는 지성,
키우는 가치

CONNECTING MINDS

CONNECTING MINDS

'진지한 노력, '함께하는 힘'으로 4大 로스쿨 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교직원, 학생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4대 로스쿨로 빛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종합관) 전경



젊은 헌신

다수의 신진 교수와
소수의 중견 교수로 출발
1회 로스쿨부터 “전원 합격”
열정과 신뢰의 틀 안착

밀착 헌신

큰 로스쿨의
‘규모의 경제’ 효과 없는 단점을
빠른 의사 결정과 실행력의
맞춤·밀착지도 강점으로 바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저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치른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올해 있었던 제7회 변호사 시험까지 졸업생들의 누적 합격률이 91.9%를 기록, 전국 25개 로스쿨 중 4위의 성적을 기록한 것. 90%를 상회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아주대학교를 포함해 총 5곳에 불과했다.

‘아주대 로스쿨의 힘’은 탄탄한 커리큘럼 그리고 구성원들의 열정과 협력, 신뢰에서 비롯됐다. 교수들은 수업 준비에 열정을 다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았다. 선배들의 성과는 후배들의 신뢰로 이어졌고, 동료 간의 협력으로 연결됐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本分)’을 다 해온 아주대 로스쿨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구재균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이슬 / 커뮤니케이션팀



2018년 3월부터 재임중인 제6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구재균 교수

원장께서 생각하는 아주대 로스쿨의 힘은 무엇인지요?

이번에 공개된 로스쿨 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고, 사실 우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역시 당해낼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수들은 수업 준비와 출제, 그리고 채점에 정성을 다 하고 학생들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교학팀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성실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데에는 로스쿨 설립 과정에서 교수들을 적절하게 충원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젊고 열의에 찬 교수들이 다수 채용되었기에 원로 교수들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서울권 다른 대학들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중견교수와 다수의 젊은 교수 사이의 협력 내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초기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와 커리큘럼 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41명 전원이 합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들의 지도를 잘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고,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에 있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보통 2학점 짜리 수업은 2시간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로스쿨은 2학점짜리를 3시간 강의로 진행합니다. 덕분에 법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로스쿨에 들어온 비법학사 학생들에게 어려운 법률이론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인력과 시간은 그만큼 많이 투입되겠지만요. 우리 교수들은 수업 준비와 출제, 그리고 채점에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판례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강의 준비에 할애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최신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그 판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기에 교수자가 강의 준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 변호사 시험의 경향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변호사 시험은 학생들이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주로 대법원의 판례를 다루는데, 교과서에서는 그 요지만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를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뿐 아니라 그 원심법원의 판결까지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지요.

교수들의 열정이 식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들이라면 아마도, 매년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 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매우 크거든요. 합격한 학생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큰 만큼 불합격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도 큼니다. 우리 로스쿨의 여러 교수님들이 낙담해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발적으로 특별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포자기 하지 않게 돕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주대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50명으로, 100~150명이 입학하는 서울 다른 로스쿨과 비교해 규모가 작습니다. '미니 로스쿨'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우리 로스쿨은 규모가 크지 않기에 교수들이 학생 개인의 성향을 알고, 그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어 낸 답안지를 하나하나 첨삭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1:1로 불러서 지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환경에서는 교수들에게 기대하기도, 또 교수들 스스로 실천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 로스쿨에서는 많은 교수들이 학생을 밀착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업이 거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작은 규모 덕에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의사 결정이 빠르고, 결정된 바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스쿨은 개원 시 만든 커리큘럼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올해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로스쿨'이기에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여러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규모의 로스쿨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커리큘럼이 실무 중심으로 짜여 있고, 현장 실습 역시 매우 충실하게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요?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습을 다녀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습을 마친 뒤 담당 교수로부터

법률

협력하는 지성, 컸기는 가치

시스템화 헌신

판례 법리의 쉬운 이해
'정성'으로 돕고
최신 법례 응용력 높이는
체계화 된 교수법

결과물을 꼼꼼히 점검 받을 뿐 아니라 토론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아주대 로스쿨은 경기도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덕분에 수원지방법원, 경기중앙지방법원등과 연계해 판례연구회, 공동학습대회, 법률 봉사, 찾아가는 법정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법원장 특강도 자주 있지요. 뿐만 아니라 법원이 도보로 오갈 수 있는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늘 현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실상 이를 단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로스쿨은 아주대 로스쿨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CONNECTING MINDS



▲ 아주대 로스쿨의 높은 합격률을 각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매우 성실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생들 간에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협력 관계가 남다르지요. 매 기수 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생들이 비전공자인 비법학사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 위주로 접근하되, 암기도 소홀히 하지는 말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이론 공부의 혼자 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이야기 합니다. 우리 로스쿨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양성입니다. 법과 정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면, 그 자격과 재능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④

깜짝놀란 법조계 아주대 로스쿨의 '기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파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 91.9%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4위의 성적을 거둔 것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누적 합격률 90%를 상회하는 대학은 아주대 학교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5곳뿐이며 25개 로스쿨의 평균 합격률은 83.1% 수준이다. 이 같은 성적표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올해 있었던 제7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합격률을 공개했다. 대회 학교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이 모두 포함됐다.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2012년 첫 변호사 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선전해왔다. 첫째 100%의 합격률을 기록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아주대와 경희대뿐이었다. 이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주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제2회 시험에서 2위(88.64%), 제3회 시험에서 2위(87.23%)를 기록한 데 이어 제4회 시험과 제5회 시험에서는 전체 1위(각 87.72%, 86.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높은 합격률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교수와 학생들 간 상호 신뢰가 높고 친밀하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교수진의 지도를 믿고 잘 따라와 다같이 '으쌔으쌔'하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 자연히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파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 91.9%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4위의 성적을 거둔 것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누적 합격률 90%를 상회하는 대학은 아주대 학교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5곳뿐이며 25개 로스쿨의 평균 합격률은 83.1% 수준이다. 이 같은 성적표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올해 있었던 제7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합격률을 공개했다. 대회 학교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이 모두 포함됐다.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 ① 변호사 시험 경향에 맞춰 지도하기 위해 실시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의 답안지. 시험 후 첨삭과 강평이 이어진다.
- ② 재판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작성을 꼼꼼하게 지도한다.

깊게, 함께, 그리고 새롭게— 아주대 로스쿨을 말하다

- ① 내가 생각하는 '아주대 로스쿨의 힘'
- ②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속독심사와
‘질문’이 있는 공부”
민경도 교수



① 아주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1.아주대 로스쿨의 교과과정인 변호사 시험에 적합하여 학생들이 학교 강의만 잘 들어도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2.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고(열심히 가르치고) 3.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교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② 법조인은 '타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 따라서 법조인이 되려는 로스쿨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더라도, '돌팔이 의사'와 같이 백해무익한 '돌팔이 법조인'이 된다. 즐겁게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며(속독심사), 질문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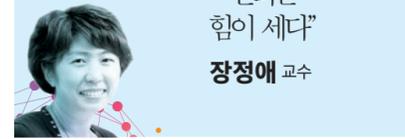
“교수가 ‘협력치 않으면
피해는 학생에게...”
이진국 교수



① 아주대 로스쿨과 타 대학 로스쿨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교원들에게 있다. 물론 재학생들이 교수들의 지도를 잘 따라줘서 합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법과대학 시절과는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주대 로스쿨만의 독자적 가치는 교수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교수들간의 다툼이 잦고 심한 경우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고질적인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수들간의 협력이 되지 않으면, 그 여파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교수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연히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게 된다. 아주대 로스쿨의 진정한 힘은 학생들을 위한 교수들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협력관계에 있다.

“신뢰는
힘이 세다”
장정애 교수



① 아주대 로스쿨의 힘은 교수진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 간의 신뢰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

을 길러주는 교수님들,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교학팀, 교직원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명품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② 우리 아주대를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부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른 법조인이 되기 바랍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용기 있는 실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긴 공부일수록
함께...”
임소연 교수



① 교수님들의 책임 있는 수업 진행과, 소수정예로 뭉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주대 로스쿨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로스쿨 과정과 변호사 시험은 길고 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단기간에 완성되는 공부가 결코 아니라, 3년 동안 계획을 세우며 '공부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 꾸준히 성실히 공부에 매진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므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2학년 때부터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특히, 방학 동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잘하고
열정과 협력 있느냐...”
조철현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 로스쿨 3기



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로스쿨제도 하에서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것은 그야말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을테고, 각 로스쿨 마다 고심 끝에 자신들만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발표를 통해, '최종 학기 종합 평가방식'을 비롯한 아주대 로스쿨만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훌륭한 것이었는지가 잘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따라 할 수 있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성원의 열정과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이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교학팀 직원들의 열정과 협력이 없었으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 학교의 시스템을 믿고 따라준 학생들의 신뢰와 학교 차원의 지원이 더해져서 오늘날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힘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이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협력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②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멋진 고대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돕거나, 훌륭한 회사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거나, 지역 발전과 정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사법 불신과 검찰 비리 등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나 변호사 취업난 등에 불안해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경쟁 아닌
공유와 협력...”

정상현
재학생 / 로스쿨 9기



① '협력'이 아주대 로스쿨의 원동력입니다. 원생들은 동료들을 경쟁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학습 자료 공유와 스터디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선의의 경쟁이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원생들의 학업에 무한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휴일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특강과 시험 후 상세한 강평 등에서 원생들 역시 자극을 받게 되고 학업을 향한 열정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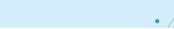
아울러 교학팀 선생님들도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에 큰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공감해주시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원생들이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성심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다.

② 먼저 전인격적 교육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적 지식만이 아닌 인품까지 갖춘 참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일구어 내신 선배님들께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재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성에 부추김 없도록 그 발자취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모두들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법전원의 미래가 참 밝아 보입니다. 건강 상하지 않게 몸 잘 챙기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아주대 로스쿨!

“모두가 알지만
가장 힘든 것”

김성아
로스쿨 교학팀 계장



① 아주대 로스쿨이 대단한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힘은 '성실'과 '화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갖추기는 힘든 기본 요건이지요.

“교수님의 성실함이 학생들의 성실함을 이끌었습니다.” 몇 년 전, 학생들의 강의 피드백에서 본 문구입니다.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 한마디가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 준비와 출제, 채점에 쏟는 노력들을 보면 저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늘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목이 쉬도록 강의를 하는 참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런 교수님들의 열정이 학생들의 성실함을 이끌고, 교학팀 직원들도 존경의 마음으로 저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켜주세요. 성실이 성실을 이끄므로 겸손이 겸손을 부르고, 신뢰가 신뢰를 가져와서 로스쿨의 교수와 학생, 직원들은 지금도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계속 되리라 믿어요! ④



특집

협력하는 지성,
키우는 가치

CONNECTING MINDS

CONNECTING MINDS



생사의 최전선에서 헌신과 사명감으로
‘제일’을 일구어 온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모든 순간이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 도착 즉시 전문의 진료와 수술이 이루어지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진료 장면.

헌신 제일 아주대 외상센터 온 환자 타 병원 이송 사례 "0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뇌혈관 질환, 그리고 외상이다. 한 해 사망자 30만명 중 10%에 해당하는 3만명 가량이 외상으로 유명을 달리한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외상은 자살, 교통사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이나 추락 탓인 경우가 많다. 중증 외상환자는 젊고,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던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에 맞닥뜨린 환자들을 살려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바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다.

정리.이슬 / 커뮤니케이션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지난 11월22일 아주대학교병원 아주홀에서 북한군 병사의 회복상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문으로 들어서 우측 지역에는 응급실 구역이 위치해있다. 응급실 구역 진입로의 왼쪽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오른쪽이 권역외상센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치료와 대형 재해·재난 대응을 맡고 있고,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총상·다발성 골절·출혈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다.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는 이곳에서 지체 없이 외상 전문의인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지역별로 총 10곳의 외상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손가락 다칠 만큼 크게 다친 중증 외상 환자가 골든 타임(Golden time) 안에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주대병원은 그 중 경기 남부권역을 커버한다. 도로 위,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기가 파열되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존재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 진료 체계의 전반을 선도하고 있는 것. 지난해 7월 센터 개설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이국종 센터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의 진료가 시작되어 시스템 대기

시스템 제일 전문의 진료 시스템 대기시간 "0분"

시간이 0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응급실에서 중증환자가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 전국 평균 6.7시간(2016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부상을 입고 실려온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사례가 없고(반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의 40%가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경우), 병원에 도착해 응급 수술이 이뤄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전국 응급실 평균의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구급차는 환자를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생긴다. 3차 병원 응급실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작은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런 작은 병원을 시쳇말로 '사(死)차 병원'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어디에서든 중증 외상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해 수술 받을 확률이 82%다. 나머지 18%는 사망이나 얼음땅 등 오지에서 사고가 난 경우일 뿐이다. 웬만한 곳에서는 100% 골든아워가 지켜진다는 의미다. 우리는 사고 나서 이 병원 저 병원 들렀다가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기까지 245분(약 4시간)이 나 걸린다. 실제로 119 구급차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응급실을 찾기 위해 병원마다 연락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전체 외상 환자의 50%가 골든아워를 지키지 못하고 위급 상황을 맞는다. 병원에 도착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지던트가 환자를 살펴보고 안 되겠다 싶어 전문의를 찾고, 검사하고, 수술을 진행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게 국내 병원 응급실의 현실이다." /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언론 인터뷰 중에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의료진의 헌신과 협력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편안하게 여가시간을 즐길 여유, 때로는 스스로의 안전까지도 포기한 채 삶과 죽음이라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이들도.

"외상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단 한 달도 간호사 정원을 채워 본 적이 없다. 간호사들이 사망감을 가지고 버텨보겠다고 하지만,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 사직률이 높다. 외국 외상센터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중환자 1명을 간호하지만, 우리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중환자 3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 환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소생이 필요한 순간 외상센터로 오기 때문에 손상된 장기가 절단된 사지가 노출된 그대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다." / 손현숙 수간호사 언론 인터뷰 중에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의료진과 시설, 장비는 365일 24시간 내내 실새 없이 돌아간다. 외상외과 의료진이 순번을 정해 늘 센터에 상주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시간 이내에 센터에 다다를 수 있는 전문의도 매일 정해져 있다. 필요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의료진이 헬기에 동승해 출동, 응급조치를 한 뒤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해오기도 한다.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방사선사와 응급구조사 등 200여명의 인력이 외상센터의 낮과 밤을 지킨다.

국민생명 '운'에 안맡기려면

의료진 '헌신'에
정부·사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로
더 높게 '연결'되어야

“누구도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자원해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물론 자원해서 왔더라도 정말 하루도 못 견디고 그만두는 이들도 있고,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35%가 넘어가고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가는 거다. (중략) 치료 받는 환자들 중 사망률이 10% 정도는 나오고 있다. 이걸 전 세계 외상센터 의사들의 숙명이다. 그걸 견뎌낼 가망 없는 환자는 받지 말아야 한다. 뿔어져 나오는 피를 다 뒤집어쓰면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외상센터 의료진의 숙명이다.” /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언론 인터뷰 중에서

의료진의 헌신으로 중증 외상 진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국종 교수 지휘 아래, 미군과 환자 후송 및 즉시 진료의 실천같은 훈련 모습, 헌신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국가·사회·여론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지만 아직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 '보석' 같은 이들 의료진 개개인의 희생과 열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스템과 문화가 제대로 기틀을 잡아 정착되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은 것. 이 길이 바로 지금은 '운'에 맡겨야 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외상은 원래 힘든 분야야. 잠 안자고 대기하고 계획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 버티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외상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외상센터가 있지만 건물은 언제든 용도변경이 된다.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매년 3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는 과거일 뿐이다.” / 문종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언론 인터뷰 중에서

참고 자료: 청년의사, [신년특집] 권역외상센터 설립 두 번째 기회를 잡으려면(2018-01-15)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국종 인터뷰 "체계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2017-12-01) / 시사저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고 있다"(2016-08-21) / MBC 방청림의 사선집중, 손현숙 간호사 인터뷰(2017-11-27)

협력하는 지성, 커지는 가치

헌신과 체계의 '동행' 해야 “아직 갈 길 멀지요”

2017년 11월13일 오후,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출혈이 심했던 20대 중반의 이 북한군 병사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견되어 유엔사 헬기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들어왔다. 이 병사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한 직후 6시간에 가까운 1차 수술을 받았고, 이를 뒤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한달 여의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12월15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북한 병사가 머무르는 동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국종 교수와 외상센터로 쏠렸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에 해적에게 피랍되어 총상을 입었던 석해군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수술을 맡으면서 이국종 교수와 외상외과 의료진에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것. 이국종 교수는 오만으로 날아가 그를 한국으로 이송한 뒤 직접 수술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중증 외상 환자와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권역별 중증 외상센터 설립이라는 성과도 나왔다.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로 아직 '시스템' 보다는 '의료진의 헌신'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군 병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국종 교수가 다른 무엇보다 힘주어 말한 것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주소다.

“여러분은 이 환자(북한군 병사)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센터에는 바로 어제 제가 헬기로 함께 출동해서 데리고 온 환자도 있습니다. 우리 외상센터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 환자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의료진에게는 그런 환자 150명이 있습니다. 센터는 100병상인데 한달 반 만에 다 찹습니다. 30분 전에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없어서 소방방재청에 바이패스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단 하나도 빈 자리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권역외상센터를 말한다

1 나에게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는?
2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의사로서
‘최고의 현장’”
허요
전문의·응급의학과교실 교수

1 요즘 병원 응급실에 찾아오는 대다수의 환자는, 실제 응급 환자라기 보다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또 빠른 입원을 위한 하나의 편법적 수단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밀물처럼 쏟아지는 많은 환자들을 중증도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그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지도 모른 채 중증 속에 흩어져 있는 '진짜 죽어가는 환자'를 찾아내고, 그 환자를 살리려는 그런 의사가 진짜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생각한다. 아주대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첫발을 디딜 때 그런 생각을 했다.

외상센터는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곳이다. 중증 환자들을 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곳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최고의 직장이다. 의사로서 배웠던 것, 알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환자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바도 많다.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면에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2 수많은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보조원, 청원경찰, 청소 여사님들까지 이 모든 분들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불가능했다.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상센터 구성원의 가족 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싶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
중증환자 위한 헌혈나서...”
익명
환자 보호자

1 아들이 운전하던 차가 빗길 교통사고로 벽을 들이받았다. 의식을 잃은 아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식이 없었고 갈비뼈와 척추뼈, 목뼈가 부러졌다. 사고가 난지 사흘 만에 소방헬기를 타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아들을 옮겼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오는 헬기 안에서 이국종 교수가 아들을 꼭 살리겠다고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줬다. 아들은 대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아들은 무사히 회복해 갔다. 사고가 난 지 두 달 여 만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

왔다. 이국종 교수와 권역외상센터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접할 때 마다 맘감이 교차한다. 아들이 다른 중증 외상 환자들과 나누고 싶다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헌혈증을 기부했다.

“‘송고함의 일’ 새기니
선구자가 돼있었다”
손현숙
외상소생구역 파트장·수간호사

1 2014년 3월, 외상집중치료실에서의 근무 첫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실 새 없이 울리는 의료기기의 알람을 해결해야 했고, 살인적인 중증도의 외상환자 간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을 만한 여유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큰 일 없이 지나가고, 갑자기 그만두는 간호사가 없길 바랄 뿐이었다. 이렇게 계속 달려오다 문득 돌아 보니 '외상'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몸이 아프다가도 이곳 외상센터에 출근하면 이상한 힘이 생긴다 - 앞으로 마구 달려나가는 힘. 쓸 데 없는 노예근성인가 싶기도 하지만, 분명 이곳에는 무언가 나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다 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2 3년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 70세 어르신이 계셨다. 오랜 치료 끝에 결과가 좋지 않아 부서원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결국 담당 주치의가 사망 선언을 하는 날, 나는 가족들께 인사를 드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그 때 어르신의 자제분들이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여전히 생생하다.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 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작별인사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외상센터 간호사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송고한 일인지를 알고, 자부심을 갖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일터의 사고 예방에
더 노력해주길...”
김윤지
외상전담 간호사(PA)

1 내게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새로운 출발'이다. 2008년에 병원에 입사, 중환자실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2013년부터 외상외과의 전담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일이 힘들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들이 나아져 재환을 하고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보람 덕에 아직까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지낼 수 있는 것 같다.

2 외상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다발성 외상으로 재활 기간도 길고 사회로의

복귀에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진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아예 다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사고 후 치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진정성의 응원
해주세요”
김호주
간호사·코디네이터

1 외상센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준 곳이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일이 터지구나', '이렇게도 일이 꼬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되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뿌듯함과 성취감도 동시에 느끼는 곳이 바로 나의 일터 외상센터다. 스스로가 이렇게 환자를 살리고, 또 실타래처럼 꼬인 일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또 이 일을 이어가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

2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야 아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종합병원의 모습은 그저 번지르르하고 멋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묵묵하게 피땀 흘리며 일하는 구성원들이 있다. 외상센터 안에서 24시간 내내 환자와 함께 하는 의료진이다. 많은 이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외상 환자와 센터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사명감도
‘응급환자인 셈...’”
송서영
외상전담 간호사(PA)

1 내가 처음 입사할 당시만해도 이곳은 지금의 '권역외상센터'라는 이름이 아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였다. 그야말로 셋방살이 중이었던 우리는 병원 별관 건물 한 칸 비좁은 공간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작은 문패로 그 역할을 설명할 뿐이었다. 우리 환자들은 다른 부서의 병동, 중환자실을 나눠 써야 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의 외상센터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꿈과 노력은 외상센터가 수 만개의 가지로 뻗어나가기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나에게 이곳은 내 청춘의 씨앗이 심겨진 곳이며 열정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곳이다.

2 사명감이 이곳 근무를 지원해도 1~2년 후 힘들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동고동락 고생하며 남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노력에 힘입어 회복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곳에서 묵묵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협력하는 지성,
커리는 가치

자기 분야의 '몰입'을 사회와 '연결'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특별 인터뷰

“인생의 목표는 '성공' 아닌 '성장'이어야 하죠.”

지식보다 경험의 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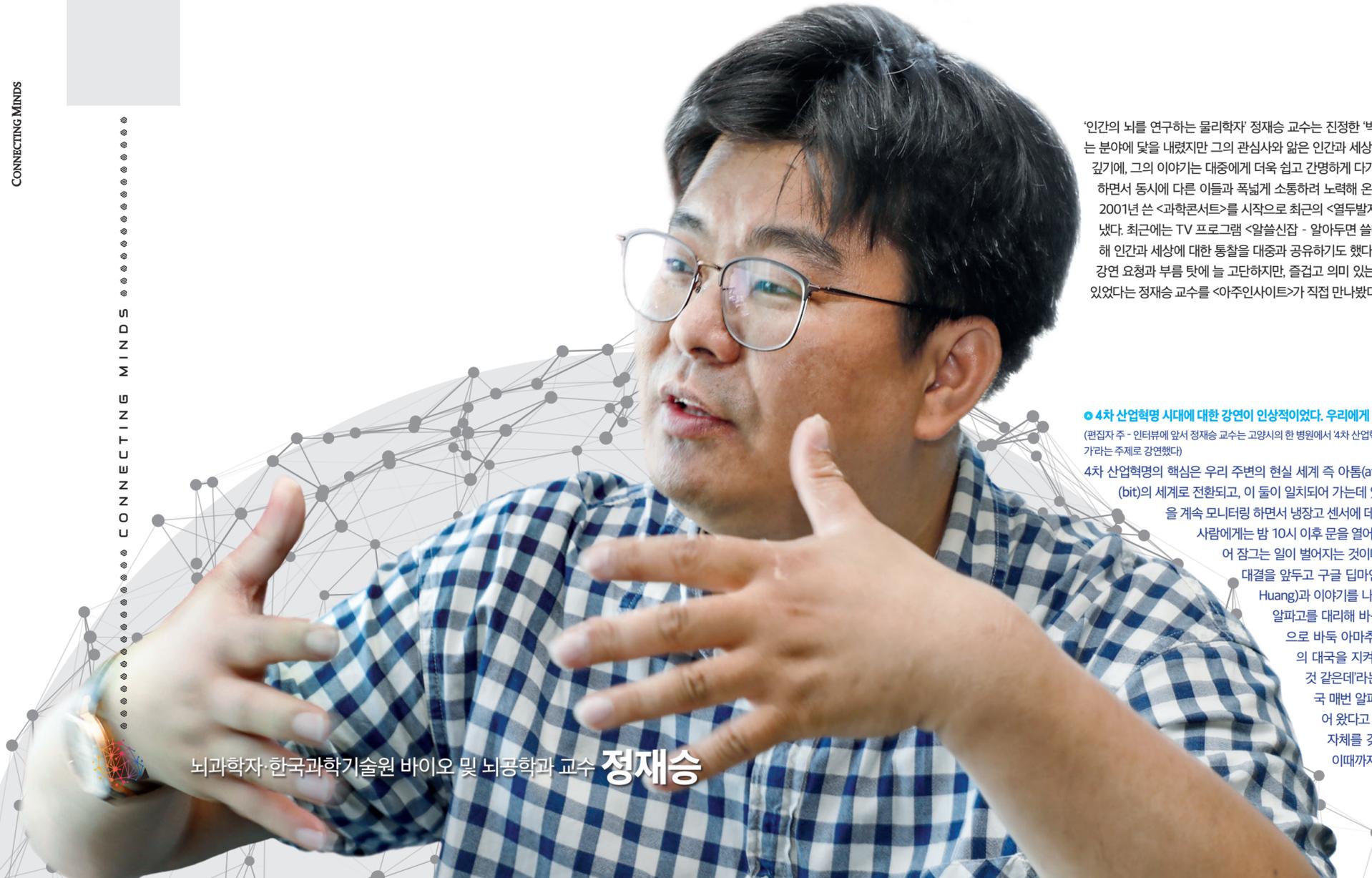
머리 속에 더 많이, 더 정교하게
지식 입력하는 시대 끝나
암기력 인재에서, 익히는 인재 돼야

협력없이 성취없는 시대로

협력 권하면서 평가는 경쟁체제 안돼
앞으로의 '스펙'...과정의 즐거움과
사회변화에 기여가 될 것

CONNECTING MINDS

CONNECTING MINDS



뇌과학자·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정재승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교수는 진정한 ‘박사(博士)’다. 과학자로서 ‘뇌’라는 분야에 닮을 내렸지만 그의 관심사와 얇은 인간과 세상 전반을 넘나든다. 그만큼 넓고 깊기에, 그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더욱 쉽고 간명하게 다가선다. 과학자라는 본업에 충실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과 폭넓게 소통하려 노력해 온 정 교수는 박사후과정에 있던 2001년 쓴 <과학콘서트>를 시작으로 최근의 <열두발자국>까지 10권이 넘는 책을 펴냈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 <알쓸신잡 -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대중과 공유하기도 했다. 강의와 연구 외에도 쏟아지는 강연 요청과 부름 탓에 늘 고단하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어올 수 있었다는 정재승 교수를 <아주인사이트>가 직접 만나봤다.

정리이슬 / 커뮤니케이션팀

세물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바둑이아말로 직관의 영역 아닌가. 앞으로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의료계를 예로 들면, 왓슨(자연어 형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IBM의 컴퓨터 시스템)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환경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정 직군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다기 보다는 하던 일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정년까지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미국 의과대학들의 커리큘럼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학부 때부터 학생들에게 ‘환자 경험’을 가르친다. 의학지식을 더 많이 더 정교하게 머리 속에 입력하는 것 보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기계는 잘 모르지만 생물학을 좋아하거나 암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사용법을 익힐 줄 알고 공학을 아는 의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이렇게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해 본 경험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 어딘가에 참여해서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보람,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력서에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따지는 ‘스펙’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어떠한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만 담겨있다. 성취 보다는 자리, 포지션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에서 이제는 어떠한 것을 이루었는가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잘한 ‘성취’의 경험을 쌓는 것,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를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자질로 ‘협력’ 없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예전엔 남들보다 1.2배 똑똑하면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 100명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협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나의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기도 하고, 협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다.

다른 이들과 협력하면, 예를 들어 4명의 힘을 모으면 1명이 할 때와 비교해 4배 정도 큰 결과가 나오리라고 단순히 생각한다. 하지만 협력했을 때, 10배 이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조별과제, 팀 프로젝트다.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나 혼자 열심히 1만점을 하면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4명이 모여서 4배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 누구는 무임승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강연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편집자 주 - 인터뷰에 앞서 정재승 교수는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리 주변의 현실 세계 즉 아톰(atom)의 세계가 고스란히 비트(bit)의 세계로 전환되고, 이 둘이 일치되어 가는데 있다. 우리 집 체중계가 내 체중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냉장고 센서에 데이터를 보내주고, 냉장고가 ‘이 사람에게는 밤 10시 이후 문을 열어주면 안되겠구나’ 라며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앞두고 구글 딥마인드의 엔지니어인 아자황(Aja Huang)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아자황이 바로 알파고를 대리해 바둑돌을 놓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바둑 아마추어 6단이다. 아자황은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 보며 가끔 ‘여기다 두면 안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매년 알파고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어 왔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의문 자체를 갖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파고가 이

개인은...인생을 배낭여행처럼

판단·예측의 고등사고 영역인
전전두엽 자극의 경험을

여행·열린 문제 적극 대응과
교수의 강의 공유 등
대학과 젊음에 큰 도움 돼

팀의 점수를 까먹게 된다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4명이 모여서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 분담식 과제를 내주어서는 이러한 점을 가르치기 어렵다. 경쟁을 붙여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이기에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는 많다. 그런데 협력을 장려하는 제도는 없다. 협력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는 방법,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협력을 권하면서도 평가는 경쟁 체제로만 이뤄지고 있다. 개개인의 기여 정도를 정량화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경쟁 상태에서 해오던 기존의 평가는 일단 현저히 줄이고, 협력을 할 때 그 그룹의 성취를 참여자 모두의 성취로 인정해주면 좋겠다.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줄이려고 애쓰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쪽에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 대학 시절 5개의 동아리에 몸 담고, 매일 다른 모임에 참여했을 만큼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 같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



▲ 학문과 세상을 깊고 넓게 연결하는 정재승 교수와의 인터뷰는 그의 '살인적 스케줄'로 오전 일찍 경기 고양시에서의 강연 직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진행됐다. "과정의 즐거움이 스펙이 되게 하자"는 대학과 젊음에게 인상적인 멘트를 남기며, 기념 촬영에 응하자마자 중형 외산차를 직접 몰아 다음 '현신할 곳으로의 연결'에 나섰다.

사회는...실패·생활 보장해야

생태계 생명체
한 줄로 세우기 불가하듯

실패 용납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 '연결의 성공'나와

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그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엔 다 비슷한 친구들만 와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철학이나 소설책을 많이 봤다. 쿨(cool)한 사람이고 싶었다(웃음). 대학에 와서도 전형적인 친구들 보다는 주변부에 있는 아이들, 조금 다른 아이들과 더 친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과학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갔는데, 과학을 너무 사랑했던 지라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하이브리드적 인간이 된 것 같다. 내가 몸담고 있는 카이스트의 경우,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절박한 꿈'이 없다는 거다. 부모님들의 가이드를 성실하게 따르며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부모님들이 달라진다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때부터 방향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핍이 있어야 욕망도 있지 않나.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욕구를 느끼기 전에 부모님이 이미 그것을 채워줬던 거다. 남들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 방향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 뇌과학자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인간 뇌에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류의 고등한 사고 영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 바로 전전두엽이다. 전전두엽은 청년기에도 계속 발달하는 부위다. 전전두엽은 낯선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인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전전두엽을 자극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즐기면 된다. 배낭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세상을 살면 된다. 인생은 정말 배낭여행이다. 모르는 언어만이 들려오는 낯선 곳에서 이미 집시에게 지갑을 빼앗겼고, 예약한 줄 알았던 숙소에는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겪는 의외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런 상황들에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지 않나.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 뭐냐? 바로 '열린 문제'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답을 써내려 가는 방식으로 출제하면 정말 싫어한다. 문제는 길고 답은 간단한, 그런 유형의 시험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 열린 문제를 출제하면 질문이 쏟아진다 -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다.

●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교과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초중고 교과목 자체도 학생들이 전전두엽을 잘 스스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협력하는 지성,
키치는 가치

W S F
N Z O U



어떤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끄덕거리며 헤매고 유사 문제를 찾아보고, 그러다 이 문제를 풀려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구나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공식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전전두엽을 한껏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해왔다. 공식을 일단 외우고,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열심히 연습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준다. 전전두엽을 써야 할 부분에 두정엽이라는, 과정을 담당하는 뇌를 쓰게 만드는 것이다. 카이스트에서는 7년 전부터 'Education 3.0'이라는 이름으로 교과과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다. 강의를 통한 교수에서 학생으로의 '지식 전수'를 줄이는 것,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 대학 학기의 대부분이었다. 미리 녹화된 수업을 듣고 수업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가서 배우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강의 녹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명확했다. 덕분에 이제는 한번 강의를 녹화해두면 얼마나 편한지를 아는 교수들이 많아졌다. 특히 은퇴하는 교수들의 강의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는 교수가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을 학교가 인정하지 않았다. 교수평가는 오로지 논문으로만 했기에 교수들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할 유인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훌륭한 수업의 내용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교수들끼리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명확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기꺼이 실패가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나온 성공작이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생태계는 아주 많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 생명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일은 기름진 토양에 적절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무언가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주변에 과실들이 넉넉하게 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갈 텐데, 개인적 보상이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창의적 성취와 다양한 결과물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데에 있어서의 핵심은 다른 이들과의 협업, 그리고 연결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더 큰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과정 그 자체가 사람과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애쓰는 과정이 즐겁지 않을 리 없다. 그 과정이 정말 즐겁기에 기꺼이 참여하고, 결과물이 주는 보람을 만끽하게 되면 '아, 이런 것은 혼자 누릴 수 없는 부분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지난 30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결국 사람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냈다. 나만 해도 엄청난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하나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할 수 있다. 몸은 힘들지만 늘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A

정재승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과학고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물리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다. 고교 시절에는 국어와 음악을 잘 하는 학생으로, 대학 시절에는 영화와 책에 푹 빠진 학생으로 지내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왔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길을 잡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연구원으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그 시절 쓴 책인 <과학콘서트>를 시작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저술과 강연뿐 아니라, 과학 강연 나눔 '10월의 하늘'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스마트 시티 총괄 책임자를 맡아 최첨단 도시를 설계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집

협력하는 지성,
키우는 가치



김현수 designer
미디어학과 09학번



MASTER NUMBER

CONNECTING MINDS

CONNECTING MINDS



‘창작의 행복’에 몰입
‘서울패션창작 St.’에서
‘파리 WN신인전’
진출까지 연결되다

맨 먼저 ‘대학생’이라는
의식·신분 버렸다
먼저 저지를 수 있고,
잘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에
뛰어들어 헌신 중



● <MASTER NUMBER>는? 2016년 시작한 디자이너 브랜드다. 패션업계에 입문해서 만난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 선배 디자이너에게 일을 배우면서 지난 2016년 1학기 파란학기제에도 참여했다. 이후 <MASTER NUMBER>를 시작,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로 선정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ho's Next' 라는 신진 디자이너 전시참여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ASTER NUMBER>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1년을 앞서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내외 패션쇼와 전시회를 타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 패션 비즈니스에서 찾는 보람과 행복은?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소비자와 국내외 패션 업계 관계자들이 내가 만든 디자인에 공감하고, 그 옷을 소비하는 모습들을 보며 행복을 찾는다. 그런 순간순간 마다 옷을 만들어 고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상 받는 느낌이 든다.

● 나에게 '패션'이란? 어려서부터 '창작'이라는 행위에 관심이 많았다. 아주대 미디어학과에 진학해, 전공 공부뿐 아니라 많은 대외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중 제일 먼저 저지를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패션 비즈니스였기에 뛰어 들게 되었다. 패션은 창작에 대한 내 열정을 실현시켜 주는 하나의 도구다.

● 내가 아주대에서 얻은 것 미디어학과에 소속되어 여러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직접 몸으로 겪고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창작에 대한 '본(本)'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 덕분에 패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학 시절, 작게나마 창업을 시도해 보려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 대학생이라는 생각과 타이틀을 버리고 시작하라.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유지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나에 대해 <MASTER NUMB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창작 활동을 위한 여러 시설을 갖춘 훌륭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곳에서 재능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현수 동문은 신진 디자이너다. 2016-1학기 파란(破卵)학기제를 통해 도전과제로 패션 브랜드 창업에 뛰어 들었다. <MASTER NUMBER>가 그가 직접 설계해 2년째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름. '패션(fashion)'이라는 분야에 뛰어 들기로 뜻을 세운 뒤 실무를 익히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설계해 널리 선보이기 까지 김 동문은 꾸준히 그리고 묵묵하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왔다. 거칠고 낯선 그 길을 두뼘두뼘 움직이게 걸은 김 동문의 이야기를 <아주인사이드>가 들어봤다.

“ 감잡이를 눈뜨게 한 현장



임진섭 기계공학과 (주)인자컨트롤스 2016.12.26. - 2017.01.20. 막연하게 '자동차 회사에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 4학년이 되어 입사지원서를 쓰려고 보니 어떤 직무를 택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현장실습을 통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생 선배들과 소통하며 여러 분야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학 4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해답을 찾아냈다.

“ 현장엔 취업의 키워드가...



김영인 소프트웨어학과 (주)와이즈넷 2017.01.02. - 2017.02.24.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의 방식을 배웠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현장실습은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키워드를 알려주었다.

“ 무엇이 부족한지 알았다



김연주 미디어학과 넷다이버(주) 2016.12.26.-2017.02.17. 현장실습을 통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확신을 갖게 됐다. 꿈을 향한 의지도 생겼다. 실무를 접하며 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

“ ‘현장’을 고민하지 마세요



김현호 기계공학과 코메론 2017.01.09. - 2017.02.03.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무를 익힐 수 있게 해주었고, 경험이라는 자산을 얻게 해주었다. 이번 현장실습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값진 경험이 되었다.

“ 현장은 성장이다



박해주 전자공학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7.07.03. - 2017.08.31. 아주인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꼭 참여해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다양한 기회를 얻었고 알차고 값진 경험을 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덩달아 스스로의 성장을 느꼈다. 하루하루를 낭비 없이 꼭 차게 보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한편의 인생강의였다



정형주 국어국문학과 독일 갤러리 슈람(Gallery Schramm) 2017.07 - 2018.01 지금껏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전시기획과 큐레이터 업무를 실제로 해볼 수 있었다. 업무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문화를 경험하는 것 등에서 더욱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안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지구 반대 쪽에서의 조연이 특효였다



양지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LIG 넥스원 2017.07.03. - 2017.07.28.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며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 또한 방산업체 인턴경험으로 무기 제조, 시험평가와 판매의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나중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경험이었다. 미래에 정보통신장교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두툼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을 거라 기대해본다.

“ 꿈만 같던 분야 참여로도 기뻐다



성주호 물리학과 국가핵융합연구소 2017.01.02. - 2017.02.24. 미래를 설계하는 분들의 노력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이런 꿈만 같은 분야에서, 나도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CONNECTING MINDS



현장이 캠퍼스다.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국내외 기업에서 장단기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주관하며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한해 동안 1000명 이상의 학생이 500여개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했다. 방학 중에는 최소 4주(3학점), 최대 8주(6학점) 동안 실습에 임하며, 학기 중에는 16주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1년 동안 해외 기업에서 실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KOTRA 무역관, BMW Korea, 미주개발은행(DB)과 미국 최대 아시아계 회계법인 CKP, 미주 최대 아시아계 마트 H마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소속 한인 기업들도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무대다. <아주인사이트>는 현장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아주인들의 후기를 소개한다.

*문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31-219-1779 / how@ajou.ac.kr / 원천정보관 106호
글로벌 인턴십 - 국제교류팀 031-219-2926 / http://oia.ajou.ac.kr



“ 실천과 체험으로 진짜 내분야를 찾았다



고현석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주)에이피피 2017.01.02. - 2017.01.31. 입사를 희망하는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직접 실습을 설계하고 제품의 최적화 조건을 찾는 과정을 통해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다. 덕분에 진로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당장 취업 OK!의 자신감을 얻다



이석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주)일진코스메틱 2016.12.26. - 2017.02.17. 웬만한 학부생이나 기업 인턴들이라면 다뤄볼 기회가 없었을 분석 기기들을 8주간 직접 다루보고 만질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 당장 QC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곳의 사원들만큼 분석기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 꿈에 대한 자신감 주는 현장



박명진 소프트웨어학과 (주)플라이하이 2017.07.03. - 2017.08.25.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무를 경험하며 IT라는 직종이 내게 맞는지 알 수 있었고, 직접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현장실습 종료 후, 회사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개발업무를 제안 받아 일하고 있다. 이 회사처럼 나와 잘 맞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 최고의 전문가로 가는 현장이라는 디딤돌



박찬규 기계공학과 (주)슈프리마에이치큐 2017.06.26. - 2017.08.18. 사회로 나가기 전,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여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회사나 사회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기기 다루는 법, 그리고 설비에 대한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 최고의 기구설계 전문가가 되었다.

“ ‘막연함’을 ‘명료함’으로



김태화 경영학과 중국 FATA 백화점 유한공사 2017.12 - 2018.02. 이전에는 막연히 '해외 영입'이나 '국내 영입' 직무를 바라보고 취업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어떤 직무가 내 성격과 잘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준비를 더 해서 발전시켜나간다면, 실제 사회에 진출해서도 후회하지 않으리란 확신도 얻었다.

“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최혜지 경영학과 일본 코아비즈(Corebiz) 2018.01 - 2018.02.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어 좋았다.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내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줄 것 같다.

“ 수강신청도 달라진다



최서현 영어영문학과 키르가스탄 월드메디칼투어(World Medical Tour) 2018.01 - 2018.02. 인턴십을 통해 나에게 맞는 부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알게 되었다. 학교로 돌아와 수강 신청할 때 배우고 싶은 것을 위주로 강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다른 선배들도 인턴십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 낯선 땅, 다른 환경을 배우자



김수연 산업공학과 우즈베키스탄 신동 에너지(Shindong Enercom) 2018.01.11. - 2018.02.07. 인턴십을 통해 한달 동안 회사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낯섬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배울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시간을 보낸 게 이번 인턴십의 가장 큰 의미다.

아주대학교 "AFTER YOU 프로그램" 아주에서 나라로,

아주에서 세계로!



CONNECTING MINDS

terly Magazine | 2018 Summer Vol.24



“그 친구를 보내자!”
아주의 “AFTER YOU” 정신 - 세계로 가다, 아주로 오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주대가 시작한 집중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학점, 어학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향한 의지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발했다. 아주대는 2015년 여름방학부터 2017년 겨울방학까지 3년 간 6회에 걸쳐 총 396명(본교생 326명, 타교생 70명)의 학생을 미국 미시간대, 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와 중국 상해교통대, 북경이공대로 파견했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아주대가 정부지원의 전국 대학 사업으로 확대된 2018 파란사다리 사업의 수도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파란 사다리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 생각을 펼치자!”
정부, “AFTER YOU 프로그램”을 국가 사업으로 잇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주대학교의 ‘AFTER YOU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설계되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2018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 대학으로는 아주대(수도권)와 강원대·충남대(충청·강원권), 전북대(호남·제주권), 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경북권), 동의대(부산·울산·경남권)가 선정되었다. 이번 파란사다리 1기는 하계 방학 기간에 전국 129개 대학 820명의 학생을 13개국의 35개 해외대학으로 파견한다.



“AFTER YOU” 프로그램
GLOBAL CAMPUS
 Photo Sketch



“그 친구를 보내자!”
 “AFTER YOU” 프로그램
 2015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031 219-2035/2923

University of Michigan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AFTER YOU”
 GLOBAL CAMPUS
 2016 SUMMER

“그 친구를 보냈구나.”

031 219 2171 / 2038

University of Michigan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AFTER YOU” 프로그램
 2017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그 친구를 보냈어!”
 “그 친구를 맞이하자!”

031 219 2171-2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ashington
 Johns Hopkins Universit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2017 One Korea 어드벤처
평화의 씨앗, 백두산으로!

2018 한독청년포럼
통일의 새싹, 라인강으로!



“평화가 평화를 낳는다”

“독일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
 2018 한독청년포럼이 지난 5월20일부터 5박6일간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에서 열렸다. 아주대 학생 10명이 참가해 독일 통일역사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분단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독일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더불어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사회 통합에 대해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 역시 진행됐다. 아주통일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2018 한독청년포럼' 현장을 소개한다.

아주통일연구소
Germany-Korea
Junior-Forum
2018.5.20 ~ 2018.5.25



아주통일연구소 소개 아주통일연구소(소장 조정훈)는 2015년 설립되어 통일 교육 활성화와 인식 개선, 통일 시대 준비 등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소는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교과목 개발 및 개선을 주도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 한국의 이해> 등 관련 과목 12학점을 수강하면 통일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연구소는 실질적 소통 중심의 통일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세대간 청소년과 아주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여름 캠프와 북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 등이 이어져왔다. 더불어 전문가 강연과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남과 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주통일연구소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과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도 선정됐다.



청춘... 통일,
그리고 희망을 말하다
2018 한독청년포럼 주요 프로그램



1. 지역의 도시, 베를린 따라 걷기
베를린 장벽,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화해의 교회 등
2. <굿바이 레닌> 영화 상영 및 토론회
구동독 출신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 Perspective³와 함께
3. 포츠담 방문
린덴슈트라세 기념관에서 20세기 독일의 정치적 박해와 폭력의 역사 생각하기
4. 한독청년포럼
독일 청년들과 함께 하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대화 및 토론
5. 기억하기, 독재청산재단 견학
구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 돌아보기

후원
BMW 코리아 미래재단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NECTING MINDS

이러한 것이 아니라
“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 한다.

누구나... 배울 줄 알면서도
사랑의 시리시리로 뛰어든다.
누구나... 화분의 꽃을 원하면서도
잡초가 되고 싶어한다.
누구나... 번듯한 길로 달리길 바라면서
골목길로 들어가고 싶어한다.
누구나... 편안한 인생을 꿈꾸면서도
안개 속으로 가보고 싶어한다.
누구나... 아플 줄 알면서도
깨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 속에 눈빛 속에
-파란학기제 프로그램 담당자-

파란학기제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앞(자신의 몸)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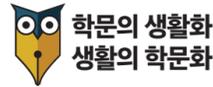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응용분야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 같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이다. 일반적인 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발행되는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없이, 온라인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다. 즉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장부를 통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신뢰가 구축된 것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가 없이,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가상화폐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만들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s://bitcoin.org/bitcoin.pdf>)"이라는 논문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에 기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소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중앙은행 없이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전자화폐(Electronic Cash)를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을 개발한다고 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송금하는 P2P(Peer to Peer) 거래가 가능한 화폐를 구상한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같은 제3자의 보증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신뢰(Trust)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다. 먼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화폐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을 도입하였다. 전자서명은 온라인 상에서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보안기술이다. 가상화폐에서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소유의 가상화폐임을 밝히게 한 것이다.

전자서명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이중으로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상에서 법정화폐는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양도가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전자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중 지불(Double Spending)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즉 가상화폐 소유자가 온라인 상에서 송금한 후, 다른 거래에 다시 사용하는 이중지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UXTO(Unspent Transaction Output)를 도입하고, 작업증명(PoW)을 통해 채굴자가 이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중지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시기반의 작업증명'(Hash-based proof-of-work)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해시기반의 작업증명은 과중한 컴퓨터 연산작업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다수가 참여한 컴퓨팅 연산경쟁을 통해, 가장 먼저 작업증명을 수행한 채굴자가 이중지불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대한 위변조 방지도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세계에 흩어진 노드 중 누가 만든 블록이 진실된 블록 인지에 대한 판단도 네트워크 통신 지연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이에 시간차를 두고 생기는 블록으로 인해 만약 블록체인이 2개로 분기될 경우, 가장 긴 체인 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소수의 공격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짧게 분기된 체인은 인정하지 않는 "긴 체인 법칙(The Longest Chain Wins Rule)"을 적용한 것이다. 정직한 다수의 컴퓨팅 파워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블록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인이 가장 길어진다는 논리를 따른다.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는 컴퓨터의 CPU에 의한 대량의 연산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적으로 정직한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체인이 위변조가 없는 정직한 거래를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이중지불이 방지되는 것. 시간이 갈수록 작업증명이라는 연산작업을 통해 소수의 외부 해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하게 해준다.

더불어 새로운 거래가 기록되는 블록(분산원장)이 생성될 때, 블록의 위변조를 막아야 한다. 분산원장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복제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공격할 특정 대상을 정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위변



‘정직한 다수’의 ‘긴 체인 법칙’을 채용했지만...

- 가상화폐를 말한다



김종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CONNECTING MINDS



비트코인은 채굴(Mining) 수수료를 지급, 참여시키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그러나 급등락으로 인해 화폐기능을 상실하고, 투기자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금융상품으로 수용은 하되 '원금손실'의 고위험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완전 판매'에는 규제가 따라야 하며, '안내와 교육'이 절실하다.

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의 정직한 참가자(Node)들이 51%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차지할 때, 소수 공격자가 거래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51% 공격'이다. 위변조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흩어진 분산원장의 51% 이상을 공격하여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발행하는 방식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진다. 채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채굴없이 처음에 모든 또는 일부 화폐를 발행하고 계획에 따라 추가로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방법이 있다. 비트코인은 채굴(Mining)을 통해 발행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채굴문제를 푼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으로 채굴(Mining) 수수료를 지급하여, 개인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중앙은행이 없는 화폐 발행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화폐를 자발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촉진제로 채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투기자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9월에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었다. 2017년 말에는 우리 정부에서 수 차례 가상화폐 규제에 관련된 발표를 내놓으며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는 고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위험에 따른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변질 되고 있다.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자는 금리는 낮지만 안전한 은행예금에 투자하거나 예금과 유사한 채권에 투자해서 고정이자를 지급 받는다. 채권은 예금과 달리 매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고, 더 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옵션 또는 선물)에 투자한다. 지금의 가상화폐는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파생상품보다 훨씬 더 급등락폭이 크고, 가치 변동에 대한 예측도 더욱 어려운 투자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선물상품도 출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수용하고 과열투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근거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 유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주식보다 고위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도록 허용하고, 무조건 금지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펀드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은 판매 시에 투자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고, 실제로 이 설명에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완전판매는 금융규제를 받는다.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과도한 판매권유를 방지하고, 투자손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포함한 안내와 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



전공 소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 사학과

역사는 미래다

- 초 과학·기술시대로 갈수록 사학적 비판과 성찰의 능력시대가 온다.



박구병 사학과 교수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

2017년 초 개봉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극중 인물 한강식 검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역사 공부 안 하니?”라고 물으면서 출세와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불량’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는 처세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촌스럽게 자존심이니 정의이니 하는 것 버리자, 역사에서 배우자, 역사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웃자.”

한강식 검사처럼 현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사 속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 인정받아온 역사 공부의 이유는 사뭇 다르다. 기원전 5세기 초에 공자가 엮은 것으로 알려진 <춘추(春秋)>에 따르면, 역사는 지나간 일의 선악과 시비(是非)를 평가하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고자 기록되었다. 달리 말해 역사는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높이 평가할 것과 비판할 것을 구분하는 윤리적 교훈의 근거였다. 따라서 공정한 역사서술을 방해하려는 권력자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춘추>의 정신이었다.

“아빠, 역사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라는 한 어린이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역사를 위한 변명 또는 역사가의 직무>는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뒤 1944년 6월 처형당한 프랑스의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의 정직한 고민과 반성뿐 아니라 역사의 정당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다양한 문서 자료를 참고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기억과 직관에 의존해 써 내려간 블로크의 유작은 역사가 무엇이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국민적 종교’로서의 역사 쓰기와 ‘전통의 발명’

역사는 동서를 막론하고 최소한 기원전 5세기에도 존재한 오래된 용어이며, 역사학은 대학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한 최초의 학문 분야 중 하나였다. 19세기 초에 역사학을 전문적 학문 분야로 정립시킨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는 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모든 개체의 움직임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되어야, 즉 “본래 그것이 어땠는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랑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록을 역설한 최초의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 유명한 문구는 때를 잘 만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랑케와 같이 객관적인 과거 서술과 분석의 가능성을 믿었던 이들은 줄곧 무엇이 어떤 서술이나 설명을 객관적이게 만드는지를 캐물었고 ‘사료(史料) 비판’을 중시했다. 하지만 역사가들에게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감정의 배제를 요구한 랑케의 금과옥조는 빛 바랜 신념이 되었다. 역사적 사실이란 파악된 사실일 뿐이며 역사적 사실과 그 밖의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에 이미 주관이 개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객관적 서술과 분석이라는 권위와 칭송을 얻은 기록 자체가 권력관계의 산물일 뿐 진실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혀 그의 신조는 힘을 잃어버렸다.

어쨌든 19세기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균질적인 국민의 창출이 국가의 필수적인 토대로 인식됨에 따라 역사가들은 공동체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발견하거나 창안하는 과업을 부여 받았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이 주목한 대로 새로운 탈(脫)식민 국가뿐 아니라 1870~1880년대 유럽에서도 역사가들은 ‘전통의 발명’에 관여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역사 쓰기는 점차 강화되고 있었던 국민 국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사실상 ‘국민적 종교’로 부상했다.

역사학 전공자가 갖게 될 능력

약 20여 년 전 인류학자 조(訥)혜정은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작사선 자리에서>에서 이렇게 간파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언급되는 ‘능력’이란 기회를 포착하고 소유하는 능력, 단기적 계산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물론 학교 성적을 올리는 암기력도, 인맥을 결성하기 위해 일류 학교만 결사적으로 찾아 다니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부정 축재를 가족을 위해 주저 없이 하는 것도 그 능력의 일부이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담긴 책을 읽지 않게 하는 것, 시민이라든가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그 능력에 포함된다.”

인문대학 사학과와 교육과정은 통해 기르려는 능력은 위에서 거론한 ‘능력’과 거의 정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법철학자 마샤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민주주의가 왜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적절히 요약한 대로 전통이나 권위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검토하고 성찰하며 토론하는 능력, 자신의 국가를 복잡한 세계 질서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삶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쟁점들의 다양성을 잘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역사학 전공자들은 시민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세부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적인 관심과 책무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블로크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비시(Vichy) 체제의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1943년 8월 말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새롭게 혁신된 프랑스는 기운 넘치는 단단한 프랑스가 될 것이요. 나라를 팔아 넘기고 조롱하며 암살한 자들과 절대 연대하지 않을 줄 아는 프랑스, 과거의 죄악에 대해 냉혹함으로써 공평한 법을 현

재에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프랑스가 될 것이요.”

변화에 주목하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은 대체로 유사성과 정형화된 양식(패턴)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고 인과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연관 관계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왔다. 1921년에 블로크가 남긴 표현은 이렇다. “역사는 무엇보다 과거에 의한 현재의 설명이다. 2학기에도 중세 연구를 없애고 16, 17세기 연구도 과도하게 단축한 1920년의 교과과정은 현대 유럽을 마치 그냥 만들어진 창조물처럼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선 시대와의 연관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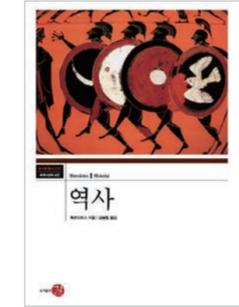
‘가짜 뉴스’ 속에서 진실 찾기: 상식이 되어야 할 비판적 사유

정보의 홍수, ‘가짜 뉴스’의 범람 속에서 결코 객관적일 수만 없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오히려 비주체적인 판단을 조장하지 않을까? 현재 한국 사회에는 더없이 소중한 공적 사유 활동을 본질적으로 긍정하지 않은 ‘전문 언론’에 양도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지배적인 담론을 자신의 판단으로 환치하며 타인에게 전파하기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 기관에 공적 사유 기능을 전임(轉任)시키는 불완전 시민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작동은 요원한 일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는 대개 중립적이거나 긍정하지 않으며 말의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일종의 선동가(demagogue)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 같은 자료뿐 아니라 각종 공적 문서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 작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학에서 사료 비판이라고 일컫는 작업과 유사하다. 사료란 정보의 원천 자료를 의미하는 역사학 용어이고 이미 랑케의 시대에도 사료 비판은 필수적인 학계의 덕목으로 인식되었다. 아주대학교 사학과와 기본이자 핵심 역사 사료 비판 교육이다. 여기에는 한글·한문·기타 외국어 텍스트와 시청각 자료를 망라한 사료의 활용, 해석, 종합적 정리가 포함되며 더욱이 융합 또는 초(超)연결의 시대 속에서 통계 데이터의 분류와 비판적 분석, 시각화 작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어 구사 능력과 더불어 세계의 주요 지역,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 능력 강화, 역사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역량 제고 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능력을 함양하려는 역사 공부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비판적 사유와 판단이 보장되는 공론의 영역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는 어떤 체제가 이룬 민주화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일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투표행위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정치 참여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 훈련된 시민과 생각하는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의 언급이 시사하듯 어떤 개인이나 집단, 사상과 이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번 내려진 평가라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 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이 중시하는 비판적 사유와 자아성찰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초고도의 과학기술에 열광하는 만큼이나 나날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는 윤리적 과제에 대해 고민의 끈을 놓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가 과연 각자의 당파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제한된 시야를 넘어설 수 있는지, 각자가 그런 제한된 관점과 시야, 그리고 눈앞의 상황에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자문(自問)하고자 한다면,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시대에 역사 공부의 필수적이다.

○역사학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추천도서



헤로도토스 지음(김봉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16

헤로도토스 지음(김봉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16

‘영원한 인류 유산’의 기원- <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헤로도토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역사’를 저술했다. 책 제목인 ‘역사’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historia)’를 번역한 말인데, 이는 ‘히스토리아(historia)’의 복수형이다. 당시 ‘히스토리아’는 ‘탐구,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 탐구 결과에 대한 서술’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었다. 이 말은 오늘날처럼 ‘역사’, ‘역사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 영역에서의 ‘탐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였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은 단순한 연대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전쟁 과정을 서술할 뿐 아니라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나열하고 시대 순으로 배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서술을 더욱 체계화했다. 헤로도토스는 전체 서술 구도를 그리스인들과 이방인(barbaroi)들의 대립관계 속에서 설정하고 페르시아인들의 그리스 원정이 있기까지 이방인들의 행적을 추적한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서술한 목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 있다. 과거의 인간사가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한, 그것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고 결국은 잊히기 마련이었다. 헤로도토스는 중요한 인간사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 계속 기억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다. 그는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과거 인간들의 위대한 행적을 탐구하고 밝혀내 영원히 기억될 유산으로 만들어 준 공로자다. 그의 이런 행위는 히스토리아의 시작이었다. 그 후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담긴 서술 동기 및 서술 목적, 서술 대상, 탐구 방식은 ‘히스토리아(역사)’의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서 비로소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역사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안병직 외, 푸른역사, 2005

진지한 과거 대면이 진정한 미래 지향- <세계의 과거사 청산>
20세기 말부터 세계 각지에서는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 군부독재의 인권침해, 내전과 대량학살, 인종차별 등에 대한 유감 표명과 진상조사, 배·보상 등이 활발해졌다. 이는 현대사에서 드러난 갖가지 반인륜적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그것이 낳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었다. 과거사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흔히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 대면, 극복, 속청, 복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다만 역사적 사실로서 과거 그 자체를 원상복구하거나 처벌과 배·보상 같은 사후적(事後的) 방식을 통해 온전하게 교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청산’보다 ‘정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세계의 과거사청산>은 비극적인 과거사의 정리라는 막중한 부담을 짊어진 후속세대를 위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11명의 한국인 역사·문화 연구자들은 각각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에서 일어난 과거사 청산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다. 이 책은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거사 청산의 모범 또는 실패 사례를 추출하지 않고, 정치세력 간의 대결, 시민사회 내의 논란 등 각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민주주의, 평화, 과거사 청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이끈다. 또한 과거사 청산은 단지 처벌과 단죄를 통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분풀이가 아니라 진지한 과거 대면과 반성에 이어 피해와 상흔에 대한 애도와 치유를 반드시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CONNECTING MINDS

BC484



역사·시민의식 못 갖게 하는 구시대의 ‘한국적 능력’ 넘어야

：

‘나의 나라’도 세계 질서의 일부 인과·연관 파악하는 공부를



0001



1009



2018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시각화 능력에서 빅데이터 분석역량까지

아주대 사학과와 입학제적 사료비판 초 연결·초 과학기술 시대에 필수



2432

RESEARCH NEWS >>>

배터리 필요 없는 무선 ‘초소형 피부 센서’ 개발

한승용 교수

기계공학과



한승용 교수(기계공학과)가 **배터리 없이 무선 통신으로 구동할 수 있는 초소형 피부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인체 곳곳의 체온과 피부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한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피부 센서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무선 통신 기술(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활용해 작동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및 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 증개 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4월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배터리 없이 무선 통신 가능한 센서를 통한 몸 전체의 생체 신호 측정(Battery-free, wireless sensors for full-body pressure and temperature mapping)>이다. 이 연구는 광주대학교 김정현 교수팀(전자융합공학과)과 함께 진행했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기존 방식에 비해 이용이 쉽고, 크기가 작으려다 정확도도 향상됐다. 그동안 개발되어온 생체 신호 수집을 위한 센서들은 동시에 여러 개 신호를 처리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유선 통신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전선들이 복잡하게 엉키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주는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피부 센서는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센서들은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의 피부에 강하게 접촉시키기 어렵고 크기와 두께가 커 착용이 불편했다. 한 교수팀은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 센서를 개발, 센서의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피부 센서의 두께는 500μm(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5개를 겹쳐놓은 정도다. 덕분에 착용하고 있어도 사용자가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얇은 두께 덕에 피부의 주름에 강하게 접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정확한 생체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테나의 전자기파에서 받는 구조다. 이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생체조직과 유사한 ‘전자 피부’ 구현

김성환·박지용 교수

물리학과 ·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성환·박지용 교수 연구팀이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해 실제 피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바이오 소재 기반 전자 피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김성환·박지용 아주대 교수(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와 민경택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나노광공학과)는 실제 피부처럼 역학적 변형이 가능하고 수분도 머금을 수 있는 실크 단백질 기반 전자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기술 분야 저명 학술지인 <ACS 나노(ACS Nano)> 5월24일자에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생체조직과 유사한 단백질 기반 전자 피부(Protein-Based Electronic Skin Akin to Biological Tissues)>다.

신체 조직에 부착할 수 있는 전자·광학 소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작은 크기의 전자·광학 소자를 이용해 인간의 생체 신호를 직접 읽어 분석할 수 있기에 차세대 헬스케어 소자로 주목 받고 있는 것. 이러한 소자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실제 인간 신체 조직처럼 유연하며 늘릴 수 있는 전자 소자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세계 연구자들은 유연 기판에 전극과 전자 소자를 집적, 다양한 인체 신호를 읽고 분석하는 소자들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자 피부 연구는 생체 조직과의 접합력이나 적합성, 수분 투습성 등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전자 피부는 생체 조직과의 완벽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합성 고분자 기판은 실제 인체에 부착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기 쉽고, 특수한 화학 처리 없이는 생체 조직에 잘 접합되지 않아서다. 산소·수분 투과도가 낮아 오랜 시간 인체에 부착하는 경우 땀이 차거나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기존 기판 소재들은 땀과 같은 체액 속 생리 활성 물질이 전자 피부의 전자 소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아주대 연구팀은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실크 단백질에 주목했다. 실크 단백질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높은 인장력과 탄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팀은 실크 단백질의 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칼슘 이온과 글리세롤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늘릴 수 있는 수화젤 필름을 구현했다. 이렇게 구현된 투명 실크 필름은 피부와의 접합력이 매우 높았다. 또 실제 피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피부의 역학적 변형에 따라 동일하게 변형되었다. 더불어 실제 생체 조직과 같이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도, 확산을 통해 수분이 투과될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



태양광-수소 전극 소재 개발

조인선 교수

신소재공학과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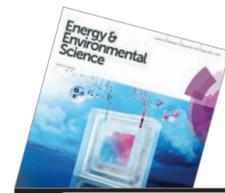


조인선 교수(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을 갖는 전극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조인선 교수와 사울린 쟁(Xiulin-Zheng)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한원수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이 포함된 공동 연구팀은 태양광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극 소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관련 연구 성과는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4월18일자에 게재됐다.

태양광-수소 기술은 반도체와 촉매를 이용해 태양광과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주목 받으면서 ‘꿈의 기술’로 각광 받아왔지만 기존의 광 전극 소재 기술로는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태양광-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10% 이상의 전환 효율이 필요하지만, 여러 걸림돌 탓에 높은 효율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조인선 교수 연구팀은 **모든 소재가 결정구조의 방향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비등방성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증착 온도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조절, 기존에 무작위로 배치되던 촉매 결정들을 표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면이 전극 기판과 평행하도록 우선 배향시켜 물질 고유의 특성을 조정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결국 대표적 산화물 반도체인 비스무스 바나타이트(BiVO4)를 레이저 증착법으로 투명전극 위에 증착, 결정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우선 배향된 광 전극 소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지원으로 수행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 높여줄 소재 개발

권오필·김종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권오필·김종현 교수팀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권오필·김종현 아주대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임상혁 고려대학교 교수(화학공학과)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용 유기 전자 수송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매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5월16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비-풀러렌 나프탈렌 다이아미드 기반의 단분자 전자 수송 물질(Non-Fullerene Electron Transporting Material Based on Naphthalene Diimide Small Molecule for Highly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with Efficiency Exceeding 20%)>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태양전지 소재로 대부분 가시광 영역의 빛을 높은 효율로 흡수하고, 전하의 이동도가 우수하여 학계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소재다.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하면 용액 공정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태양전지 제작이 가능하고, 유연하고 구부러지는 태양전지 구현도 가능하다.

그동안 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 수송 소재(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가 개발되어 왔지만 대부분 합성과 정제가 까다로워 단가가 비싸고, 고온에서의 구동 안정성이 낮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연구팀은 **우수한 전자 수송 능력을 가지면서도 합성이 용이한 나프탈렌 다이아미드(전자 수송 능력이 뛰어난 유기물 반도체 소재 중의 하나)의 유도체 구조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나프탈렌 다이아미드에 유연성과 견고성을 동시에 가지는 화학그룹을 도입함으로써 저온 용액 공정이 가능하고, 고온에서의 구동 안정성 역시 뛰어난 새로운 유기 전자 수송 소재를 개발했다.



빛 제어할 수 있는 고효율 광학 소재 개발

권오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권오필 교수 공동 연구팀이 **물질 내에서의 빛의 속도와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비선형 광학 결정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빛의 성질을 조절해 활용해야 하는 초고속 광통신과 레이저, 테라헤르츠 발생기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오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물리학과)는 다양한 광변환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유기 비선형 광학 결정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매터리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 5월22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고효율 비선형광학 특성과 테라헤르츠 발생 효율을 나타내는 수소결합 양이온-음이온 조립 기반의 단결정(Single Crystals Based on Hydrogen-Bonding Mediated Cation-Anion Assembly with Extremely Large Optical Nonlinearity and Their Application for Intense THz Wave Generation)>이다.

유기 비선형광학 결정은 물질 내의 빛의 파장이나 굴절율과 같은 빛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광변환 소재로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선형광학 결정 소재를 이용하면 높은 구동안정성을 기반으로 초고속 광통신 소자, 레이저, 테라헤르츠 발생기 등에 쓰이는 고효율 광변환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광변환 소자는 전기적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 전기적 정보를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으며, 빛의 파장을 바꾸거나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다양한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고효율의 광변환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무기 결정이 활용되어 왔지만, 낮은 비선형광학 특성으로 효율이 떨어져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고분자 기반의 비선형광학 소재는 높은 비선형광학 특성을 나타냈지만, 장시간 사용 시 비선형광학 특성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동 안정성에 한계를 보여 왔다. 연구팀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수소 결합으로 연결된 직렬 구조를 도입하면 높은 비선형 광학 특성에서 기인하는 높은 광변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양이온-음이온 직렬 구조 기반의 새로운 유기 비선형광학 결정은 지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양이온-음이온 병렬구조 기반 유기 결정보다 높은 비선형 광학 특성을 나타냈다.



NEWS >>>



2017 우수 연구자 시상

'2017 아주 연구상·아주 우수 논문상 시상식'이 4월19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교는 우수 연구자에 대해 ▲아주 연구상(Ajou Research Awards)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아주 연구상은 연구 실적을 정성·정량 평가해 울곡·다산 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한다. 아주 우수 논문상은 한해 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을 저널의 인용 지수(Impact Factor, 기준은 JCR에 따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2017 아주 연구상'은 다산상 부문만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논문을 펴낸 연구자(이공계 2명, 인문계 2명)들이 다산상 수상자로 뽑혔다.

'2017 아주 우수 논문상'은 월드 클래스 프라이즈(IF 30 이상)를 비롯한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다. 월드 클래스 프라이즈의 영예는 이지는 교수(물리학과)와 심태섭 교수(화학공학과)에게 돌아갔다.

인용지수 3%에 해당하는 논문을 펴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프라이즈에는 권오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를 비롯한 13명(논문은 15편)의 교수가 선정됐다.



1학기 파란학기 마무리, 성과발표회 열려

2018학년도 1학기 파란학기제를 마무리하는 성과발표회가 지난 6월8일 종합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종합관 로비에서는 본 식에 앞서 학생들이 파란학기제를 통해 진행한 과제들에 대해 전시하고 시연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오영태 산학부총장과 한민엽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올해 1학기 파란학기제에는 총 20개팀 8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도전과제를 수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훌륭한 뱃사공상은 인디리스트 팀에게 돌아갔다.'

아주대 파란학기제-도전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 ▲ 2018-1 파란학기제 수상팀
훌륭한 뱃사공상 인디리스트
황금실배상 써니딕셔스
내일의 주인공상 AFC
Zero to One상 Crowd Chain
타닝포인트상 모먼트 / 축지법
과일릿상 하이라이트 / 스팩트럼 / 스노우볼
이노케이터상 우-건-소 / SESCO / Blossom / Vincero / 스튜디오 하람
시선집중상 하이라이트



'아주 명강사' 교육 우수 교수 6인 선정

'2017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 시상식(Teaching Award)'이 4월11일 열렸다. 경영학과 Troy Benjamin Felver 교수를 비롯해 학생 교육에 힘쓴 6명의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교육 우수 교수는 각 단과대학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육방법의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7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 대상은 Troy Benjamin Felver 교수(경영학과)가 수상했다. 벤자민 교수는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영윤리>와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상법 1, 2>, <이문화 관리> 등 다양한 과목을 강의해 온 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교수법을 도입해 활용해왔다.

- ▲ 우수상 수상자
곽진 교수 / 사이버보안학과
백호기 강의교수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안성혁 교수 / 물리학과
박재연 교수 / 국어국문학과
김성환 교수 / 경제학과



NEWS >>>

PEOPLE

교양교육 강화·혁신 논의 시작, TF 출범해 첫발

기초교양 교육 혁신 TF가 출범,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기초교양 교육 강화를 목표로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고, 아주대학교에 적합한 교양 교육 방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됐다.

강경관 교수(소프트웨어학과)가 수장을 맡은 기초교양 교육 혁신 TF는 11명의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됐다. 다산학부대학 홍성기·송하서·홍성연 교수와 박병우 교수(사학과), 노명우 교수(사회학과), 김승환 교수(경영학과), 박성규 교수(생명과학과), 고호경 교수(교육대학원), 신종호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이은규 교무팀장, 김승권 대학교육혁신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지난 4월27일 첫 회의를 열고 ▲국내외 대학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기초 교양 교육과 학부 교육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TF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의 운영계획과 회의 내용뿐 아니라 각종 자료와 교육 과정 현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교양 교육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TF 회의에는 아주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VENT

아주통일연구소 제1회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

아주대 소속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최한 <제1회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가 2018 코리아, 국제개발협력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6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부총재 4명과 유엔(UN) 최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패널토론이 가장 먼저 마련됐다.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경험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빅토리아 피과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소속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발과 제도 개선, 능력 배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지난 70여 년간의 국제 개발 경험과 교훈들을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국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VENT

'빅데이터' 연구자 한자리에, 센터 설립 공청회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4월26일 성호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빅데이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7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전자공학과, 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정보통신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경영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연구정보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참석자의 연구 주제 소개 ▲센터 설립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연구 활동과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주 총장은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에너지, 블록체인 분야 등에서 교류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VENT

창업을 꿈꾸는 젊음 위한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오픈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이 4월11일 캠퍼스플라자에서 개최됐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특별한 공간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캠퍼스플라자 3층에 마련된 총 340.1㎡의 공간으로, 3D프린터를 비롯해 시제품 제작 장비 50종을 갖추고 있다. 시제품 설계에 필요한 2D와 3D 설계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와 3D스캐너, 레이저커터와 진공성형기를 비롯한 기계 가공 장비들도 들어와 있다.

이주대 학생들과 타 대학 학생들,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한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쾌한 4차산업 기술 특강'으로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실습 ▲이두이노 활용 시물인터랙티브 체험 ▲아두이노와 드론 융합이 마련된다.

더불어 창업 아이템의 실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changup.ajou.a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Ajou Food Truck



내일의 요식업 CEO를 향해! 아주 푸드 트럭

학점도 따고 현장 경험도! 경기도와 아주대가 함께 지원!

원천정보관 앞 # 오늘은 달밤 # 10시 발령을 찾아주세요~

NEWS >>>

AWARD & SELECTION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전자공학과 '최우수' 선정

아주대 전자공학과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전자반도체 산업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를 통해 산업계가 직접 분야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직접 제시하고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석유화학 ▲화장품 5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75개 대학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관련 기업 2027곳의 임직원 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전자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임직원이 함께 했다. 이 분야에서는 아주대와 사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산업계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30%)·운영(50%)·성과(20%)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AWARD & SELECTION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2021년까지 사업비 60억원 확보

아주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까지이며 성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창업준비, 사업화,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패키지화시켜 대학을 창업의 요인으로 육성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신규 포함된 아주대와 서울대, 경북대 등을 포함해 총 43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아주대는 ▲ICT 융복합 기술창업지원 전진기지 구축 ▲맞춤형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기반 시제품 제작 플랫폼 구축 ▲창업지원 학사제도와 인사제도를 갖춘 '창업 친화형 대학'으로의 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AWARD & SELECTION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 확대, 교육부 'BRIDGE+ 사업' 선정

아주대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BRIDGE+ 사업(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은 2015년부터 추진된 BRIDGE 사업의 후속으로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2기 사업이다. 아주대는 BRIDGE 사업에 이어 BRIDGE+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에 앞으로 사업기간 동안 연간 6.8억원씩 5년간 최대 3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BRIDGE+ 사업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융합해 결과물을 산업계에 이전하는,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는 앞으로 기술 이전·사업화 전담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학 등 다른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 기반의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ONNECTING MINDS

박형주 총장-노명우 교수 학생, 주민과 '인생극장'을 펼친다.



박형주 총장과 세 번째 총장 북 클럽이 6월 12일 열렸다. 이번 북 클럽은 <인생극장>의 저자 노명우 교수(사회학과)와 함께 했다. 박형주 총장과 노명우 교수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주 가족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 북 클럽은 학기 중 매달 열리는 모임으로 총장과 학생들이 한권의 책을 미리 읽고, 정해진 날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책 읽는 즐거움 - 총장 Book Club



2018년 1학기 북클럽 도서
 ▲리리어 수업(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석한길 지음, 시루) ▲인생극장(노명우 지음, 사계절)

NEWS >>>

AWARD & SELECTION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아주대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이 성인 학습자 친화적 학사 체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3개 대학을 선정해 총 1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주대는 학과형 모델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이래 3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학교는 올해 지원 예산 3억4000만 원을 포함, 총 11억원 상당의 국고를 받아 재직자 전형 학과 운영에 투자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학과 인프라 구축과 교육 과정 개발, 장학금 지원 등이 이뤄져 왔다. 아주대는 고교 졸업 후 산업체에서 근무해 온 이들을 위해 재직자 전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공과대학 융합시스템공학과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가 재직자 전형으로 운영되는 학과다. 융합시스템공학과는 2017년 1학기부터 학생을 선발,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경영학과는 올 3월 첫 신입생을 받았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대학이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학사 체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이어왔다.

AWARD & SELECTION

과기부 '대학 ICT연구센터'에 2곳 선정

아주대 2개의 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개 대학 12개의 연구센터를 <대학 ICT 연구센터(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ITRC)>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연구센터에 연 5억3000만원~8억원씩을 4년간 지원한다. 연구센터들은 ICT 산학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하며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주대에서는 김재현(전자공학과) 교수의 <위성정보 융합 서비스 ICT 인력 양성 연구센터>와 노병희(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의 <MR-IoT 융합 기반의 재난 대응 인공지능 응용기술센터> 두 곳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블록체인과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될 분야에서 연구센터를 선정했다. 아주대 2곳의 센터를 비롯해 고려대와 서강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센터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VENT

융합시스템·글로벌경영 재학생을 위한 청아 멘토링 열려

융합시스템공학과·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가 열렸다. 김동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청아 회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 5월 19일 다산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융합시스템공학과·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했다. 두 학과는 재직자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날 멘토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간 고등학교·야간 대학을 마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인 청아 회원들이 자리했다. 김동원 경제부총리(전 아주대학교 총장)와 강동현 코메론 대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권점주 독심경영연구원 원장, 박계신 디자인도모리아 회장, 박시형 쉐넌퍼커스 고문, 송기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조성일 한국NSK 대표가 참석했다. 아주대 박형주 총장도 함께 했다.

청아모임의 회원들은 김동원 전 총장 재임 시에도 "AFTER YOU 프로그램-아주 글로벌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에 꾸준히 함께 하는 등 아주대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멘토들과 학생들은 간단 대화를 통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회에 이어 피자파티도 마련됐다.



AWARD & SELECTION

전윤수 교수 연출 '세이프 미' 밀라노 국제영화제 수상

문화콘텐츠학과 전윤수 교수가 연출한 단편영화 '세이프 미'가 밀라노 국제영화제 국제 단편영화부문(Best International Short Film)에서 수상했다.

밀라노 국제영화제(MIFF Awards)는 지난 5월 21일 개막했다. 전윤수 교수는 '세이프 미'로 이탈리아 현지에서 공식 촬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장수(배우 김인수)에게 일어난 일을 그린 '세이프 미'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8 단편영화 판로개척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전윤수 교수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인도>, <식객> 등을 연출했다.



EVENT

2018 유쾌한 취업 간담회, 선후배 한자리에

대학일자리센터가 '2018 유쾌한 취업간담회'를 개최했다. 6월 1일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수원 고용복지+센터 청년고용정책홍보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수원 일자리센터, 청년비람지대에서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입종·직무별 동문 초청 취업 멘토링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이미지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동문 초청 취업 멘토링에는 각 기업에 재직 중인 졸업생 멘토 80명과 재학생 멘토 4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4시간에 걸쳐 ▲자동차 ▲전자 ▲IT ▲화학 ▲공기 및 맞춤형 ▲마케팅 6개 업종 68개 회사에 재직 중인 멘토들을 찾아가 기업과 직무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히 상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고용복지+센터와 수원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청년고용 정책 유관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했다. 각 기관에서는 개별 부스를 마련,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청년 대상 서비스들을 알리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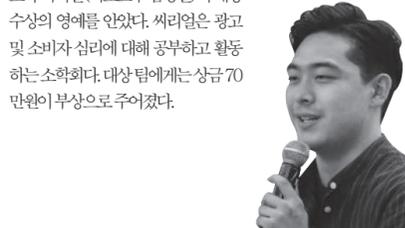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 열려

'2018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가 열렸다. 동아리 부문에서 유레카, 소학회 부문에서 씨리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콘테스트는 5월 3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학생들과 지도교수, 박형주 총장과 조재형 학생처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했다.

'2018 동아리·소학회 콘테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다. 학생들이 여러 동아리와 소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동아리 63개와 소학회 179개가 참가했고, 6명의 교수로 구성된 대학문화위원회에서 심사에 수상팀을 결정했다. 심사는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에 기준을 두고 진행됐다.

동아리 부문과 소학회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20팀에 대한 사상이 이루어졌다. 동아리 부문에서는 유레카가 대상을 받았다. 발명·아이디어 동아리인 유레카(지도교수 조위덕)는 지난 1987년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소학회 부문에서는 심리학과 소속 씨리얼(지도교수 김경임)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씨리얼은 광고 및 소비자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하는 소학회다. 대상 팀에게는 상금 7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NEWS >>>

EVENT

대우장학재단, 단과대학 수석 38명에 장학금

2018학년도 대우장학 수여식이 4월4일 오전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단과대학 수석들에게 등록금 전액의 장학혜택을 주는 대우장학은 199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번째를 맞았다. 대우장학은 지금까지 총 184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금액은 총 60억원에 달한다. 수여식에는 38명의 장학생들을 비롯해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과 대학장학재단 이사진, 박형주 총장 그리고 각 대학 학장,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승현(인문대학) 학생은 장학생 대표로 나서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추호석 이사장은 "오늘의 장학수여식이 여러분의 더 큰 미래, 원대한 꿈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ATION

이종철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제7기 이종철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5월11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총 8명의 재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증서를 받았다. 올 1학기에는 약학과 서정미 학생을 비롯해 8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25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이종철 기부자(백평금속 회장)는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졸업생으로 앞서 장학금 4억원을 기부, 이종철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이종철 기부자는 이종철 장학금 이외에도 아경장학금과 아주대 "AFTER YOU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특히 올 1학기부터는 경영대학원 동문들이 주축이 된 아경장학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철 기부자는 격려사를 통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떨린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아주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기 이종철 장학생>
 ▲신소재공학과 정병주 / 권혁신 ▲의학과 김나영 / 강희서
 ▲간호학과 김승연 / 강동혁 ▲약학과 권민정 / 서정미



DONATION

7기 김수정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김수정 장학' 제7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3월23일 율곡관에서 열렸다.

'김수정 장학'은 아주 동문인 김중권(전자73)·서호영 부부가 2014년 10월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김수정 양의 뜻을 기리고자 2015년 기부 약정한 3억원으로 만들어진 장학이다. 이후 배학기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장학생 10명이 선발되어 혜택을 받게 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뽑혔다. 김중권 기부자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고, 한충희 학생(건설시스템)이 대표로 감사의 편지를 낭독했다.

김중권 기부자는 "7번째 장학생들을 맞이해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고,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기 김수정 장학생>
 ▲심동현 신소재공학과 ▲한성실 응용화학생명공학과
 ▲한충희 건설시스템공학과 ▲이기용 소프트웨어학과
 ▲고수민 화학과 ▲김민정 생명과학과 ▲송현빈 경영학과
 ▲이상민 의학과 ▲최승원 의학과 ▲박혁신 약학과



PEOPLE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 더큰수원기획단 단장 위촉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이 수원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더큰수원기획단'의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원시는 지난 6월21일 시청에서 민선 7기 더큰수원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더큰수원기획단은 열매터 시장 인근 7기 4년 동안의 시장 운영 철학·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제의 발굴과 약속사업들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더큰수원기획단은 ▲지방정부분과 ▲활기찬 경제분과(경제·도시) ▲탄탄한 복지분과(복지·교육) ▲매력도시분과(문화·환경)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수원 시민, 공직자로 구성된 위원 74명이 각 분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아주대에서는 더큰수원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총 5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큰수원기획단 위원으로는 박성민 행정학과 교수, 김광민 의과대학 교수, 하경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보라 아주농업연구소 연구원이 활동한다.



DONATION

아경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5월2일 다산관 강당에서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아주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지난 2007년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올 1학기 아경장학재단 장학금은 총 28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이예찬(기계공학과) 학생을 비롯한 학부생 9명이 아경최고 장학 장학금을 받았고, 경영대학원 고경아 학생을 비롯한 3명이 비전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금도별장학은 일터팻(경영학과) 학생을 비롯한 14명의 경영대학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그밖에도 대학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남영화 학생과, 경영학과 이현수 학생이 각각 일반장학생과 박문회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개최됐다. 제3대 이사장을 맡았던 김형균 이사장이 물러나고, 이종철 제4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이종철 신임 이사장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장을 수료했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동문과 교수, 학부모든을 중심으로 2007년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재단은 학생 장학금 뿐 아니라 ▲아주대 인조잔디구장 설립 ▲미국중 교수 연구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체육시설 지원 등에도 꾸준히 지원해왔다.



EVENT

스승의 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행사 열려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에서 여러 행사가 열렸다.

5월15일 성호관 앞 잔디밭에서는 '교수님과의 문화 산책'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 산책은 교수와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학생들의 사진 신청을 통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올해로 11번째 열리고 있다.

문화 산책 신청자에게는 아주대 학생에서 준비한 카페인과 문화상품권,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다. 학생들은 이날 성호관 앞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교수들에게 카페인을 직접 담아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생들은 참가자들에게 기념으로 즉석사진을 촬영해 선물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총학생회 학생들이 총장실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호 총학생회장(건축 13)을 비롯한 총학생회 학생들이 참여했다. 박형주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격려했다.

이어 16일에는 총동문회가 개최한 스승의 날 기념 오찬 행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법재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주요 관계자들과 박형주 총장과 오영태 산학부총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함께 했다. 이성호 총학생회장과 아주대 명예동문들도 자리했다.



NEWS >>>

EVENT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교류의 시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이 공군사관학교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할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진도를 미리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16명은 지난 5월16일 학교를 방문했다. 이영권 소령의 인솔 하에 아주대를 찾은 공사 학생들은 공군사관학교 전자통신학과 3학년대에 재학 중이다.

공사 생도들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기회도 가졌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휘 학생은 "앞으로 임관하면 함께 생활하게 될 공사 생도들을 만나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공군과 아주대의 계약학과로 2015년 신설됐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공군으로부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임관, 7년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군에 남거나 방위 산업체, 국방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EVENT

총장-팀장 간담회 열려, 매월 마지막 금요일 개최 예정

첫 총장-팀장 간담회가 5월30일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는 학내 주요 현안의 공유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매월로 매달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주 총장과 대학본부 부서 및 산학협력단 소속 팀장들이 참석했다.

박형주 총장은 참석한 팀장들에게 ▲건물 신축 ▲빅데이터 연구센터 설립 ▲기초교육 혁신 등 우리 학교의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총장-팀장 간담회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부 부서 및 산학협력단 팀장과 각 단과대학 및 부속부설기관 팀장 그룹으로 나누어 격월로 진행된다. 또 학기에 한 번씩 전체 팀장들과 총장이 만나는 통합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VENT

박물관, '우리 지역 옛 이야기' 강좌 이어가

아주대 박물관이 <대학 박물관과 함께 찾는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5월10일 그 첫 순서로 수원, 오산, 화성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를 주제로 문화 강좌가 열렸다. 성호관 1층 소극장에서 열린 이 강좌에는 이형원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좌에서는 고고학의 기초뿐 아니라 수원, 오산, 화성 지역의 선사시대 생활상이 구체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생생하게 전달됐다.

아주대 박물관과 수원대 박물관, 한신대 박물관이 함께 주관하는 <대학 박물관과 함께 찾는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강좌는 경기 남부의 역사문화적 중심인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의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통된 고고·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구역이 달라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강연은 5월17일, 31일에 연이어 개최됐고 이후 강연은 11~12월 예정되어 있다.



AWARD & SELECTION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팀, 구글해커톤대회 대상 수상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해커톤 2018 (Google Cloud Platform Hackaton 2018)>에서 대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범근·박명진·김희연·김지선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대회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퍼블릭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해커톤 대회(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이튿날인 31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주대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 'Air Bonobono'는 AirBnB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취저가와 ▲시설 정보 외에도 ▲지역 내의 범죄빈도 정보를 제공해서 치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구글 BigQuery에서 제공하는 사카고 범죄 데이터와 AirBnB에 등록된 숙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서버로 가동되도록 했다.



AWARD & SELECTION

건축학과 학생팀, '이탈리안 패션 허브' 국제 공모전 수상

건축학과 김경열·임윤하(11학년, 건축학 전공) 학생이 국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인 <이탈리안 패션 허브(Italian Fashion Hub)>에서 Gold Mention에 선정됐다.

YAC(Young Architects Competitions)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의 센터그로스(Centergross)라는 패션 허브를 베스트 패션의 중심지로 재생시킬 수 있는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전세계의 건축가, 디자이너,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경열·임윤하 학생은 '건조실(Dryroom)'이라는 이름의 팀으로 참가했다. 이 팀은 이탈리아 건축과 패션을 아우르는 아이덴티티를 공간으로 해석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건축학과 전유창·김성욱 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건조실(Dryroom)팀은 1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올랐다. 이후 4개팀이 수상하는 Gold Mention에 선정되어, 부상으로 1000유로의 상금을 받았다.



AWARD & SELECTION

장기근속 직원 시상식 열려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4월16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올해 장기근속자로는 30년을 근속한 김형근 정보통신대학 교학팀장과 10년을 근무한 8명 등 총 9명이다. 근속자들은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학교는 매 10년씩을 단위로 근속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매년 총장실에서 가지고 있다.

<30년 근속>
 ▲김형근 정보통신대학 교학팀장

<10년 근속>
 ▲강민철 정보통신대학 교학팀 ▲김성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
 ▲문현배 경영대학 교학팀 ▲박한나 학술정보팀
 ▲신정철 시설팀 ▲이현규 교원팀 ▲정우준 대학발전팀
 ▲조환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상 계장

NEWS >>>

EVENT

윈드리버, 세계 최고 실시간 운영체제 프로그램 SW학과에 제공

소프트웨어학과는 3월15일 교내 율곡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증식을 열고 윈드리버코퍼레이션으로부터 실시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VxWorks(브이엑스웍스) 라이선스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5억원에 달한다.

윈드리버코퍼레이션는 지능형 커넥티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차세대 커넥티드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차량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윈드리버코퍼레이션가 기존한 VxWork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oT 및 임베디드 시스템 전용 운영체제이다.

소프트웨어학과는 VxWorks를 학과내 자동차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교과와 실습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학생들은 졸업 전에 자동차 운영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산업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역량있는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AWARD & SELECTION

‘대학일자리센터사업’ 2년 연속 최고 평가

아주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기능을 일원화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밖의 지역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 청년들에게 고용정책을 안내하고 자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했다. 아주대는 2015년부터 운영기관에 선정됐으며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된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 ▲지역단위 청년고용 거버넌스 운영 및 정책인지도 제고 ▲자율개선계획 추진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총 4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진로와 취업 지원이 연계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와 대학 특성에 맞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연계·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CONNECTING MINDS

학교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학부모 - 학생과 학교 발전의 동반자로서 부모님과 학생간의 다양한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나의 아들 준수에게-
다양한 학교활동으로
깊고 넓어졌더구나
:
“많은 기회주는 대학
만들어 주세요

“나의 아버지께-
자랑스런 ‘박씨아주인’
될게요
:
제 선택 지켜봐 주세요”

“남학생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간호대학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준수가 학과에 자긍심을, 학교에 애교심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교내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이들을 만나고 배우며 아이의 생각이 한결 깊고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어질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꼭 필요한 존재,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고, 꾸준히 외국어 공부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요.

준수를 비롯한 아주대 학생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 뒷받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여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사회로 진출한 아주 졸업생들이 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이주대학교는 ‘박씨’ 같은 존재예요. 우리 학교에는 자랑스러운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자랑스러운 아주 졸업생이 되어서 제가 선택했고, 저를 선택해준 아주대에 보답하고 싶어요. 아, 저는 이미 ‘박씨’이기도 하죠.

제가이주대에 오게 된 것은 ‘인연’이라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중한 인연도 많이 만났죠. 학교 안에서 전공기부단으로 활동하며 여러 학과 친구들과 만났고 학교 밖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대학의 의대·치대·한의대와 간호대에 소속된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앞으로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높이 날아보고 싶어요. 여러 일로 힘들었던 이번 학기, 저에게 힘을 준 우리 간호대학 교수님들과 학과 동기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할게요!”

박종문
박준수 학생 아버지
30년간 철도 교량 설계 및 감리 업무에 종사하며 2명의 자녀를 키웠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철도 노선 시공 현장에서 교량 분야 책임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준수
간호학과 17
세 번의 도전 끝에 아주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명사형의 꿈이 아닌 동사형의 꿈을 꾸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자 한다.

1973

1979

1985

1991

1997

2017

2023

2029

2035

2073

1973 - 2023 - 2073 **CREATIVE**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

CHIEF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ma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남경호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슬
cultural contents 심경석
정혜진

PHOTOGRAPHER mathematics digita media 강건희
kim dohyung 김도형
seol chong studio 권준하
김설총

ART office of communications alaska design dept. 김진속
심은명 심은명
신혜원

DESIGN & PRINT alaskaindigo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신경철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pyright © 2018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Ajou Quarterly Magazine | 2018 Summer Vol.24

